참여 | 협력 | 영광

서울대 총동창신문

개학 1895년
통합개교 1946년
창간 1976년 4월 24일

www.snua.or.kr

[월간 제549호] 2023년 12월 15일

02 2023 총동창회 주요 활동 리뷰
한 학기 장학금 20억원 첫 돌파

03 양창수 민법개정위원장
"65년 묵은 민법 바꿔야 한다"

04 올해를 빛낸 서울대 연구
뇌과학·미디어·로봇…세계가 주목한 연구자

09 관악대상 후보 찾습니다

모교 미식축구 50년 만에 큰일냈다

모교 미식축구부 그린테러스가 12월 2일 제63회 전국 대학 미식축구 선수권대회에서 50년 만의 전국대회 우승을 이룬 뒤 포효하고 있다. 사진=박경규 동문

제63회 전국대학 선수권대회 우승

모교 미식축구부 '그린테러스'(주장 정진욱)가 50년 만에 대학 선수권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12월 2일 경북 군위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63회 전국 대학 미식축구 선수권대회 결승에서 그린테러스는 동의대 미식축구부 '터틀 파이터스'를 19 대 17로 꺾었다.

'타이거볼'로 불리는 전국 대학 미식축구 선수권대회는 춘·추계 지역리그에서 올라온 8개 대학팀이 토너먼트 식으로 승자를 가린다. 모교는 성균관대와 결승전을 끝으로 추계리그 전승 우승을 기록하며 기세 좋게 전국대회에 진출했다.

경북대와 동아대를 차례로 꺾고 결승에서 만난 동의대는 대회 우승 전력이 8회에 달하는 만큼 쉽지 않은 상대였다. 경기 시작 2분 만에 2점을 선취하며 출발한 모교는 제2쿼터에서 동의대의 반격 성공으로 한때 10 대 5까지 밀렸다. 그러나 러닝백 문지민의 과감한 중앙 돌파로 재역전 스코어인 12 대 10을 만들고 내처 7점을 추가했다. 경기 종료 5분 전까지 동의대가 2점 차로 맹추격해 왔지만, 모교 세이프티 이상우가 상대 공격을 끊어내며 승리를 결정지었다. 이로써 마지막 우승년도인 1973년 이후 50년 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6면에 계속

이승준·청원·승익 동문 3형제 장학금 5억원 쾌척

이승준(섬유공학56-60 풍국산업 명예회장·사진)·이청원(자원공학62-67 풍국산업 회장)·이승익(화학공학75졸 재미 공인회계사) 동문 3형제가 12월 11일 본회에 장학금 5억원을 기부했다.

이승준·이청원 동문은 앞서 2005년 본회에 장학금 5000만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로 막내 이승익 동문도 합류했다. 이청원 동문은 "한평생 부지런함을 생활신조로 모범을 보이신 부모님을 따라 우리 형제들도 평생 부지런하게 살아왔다. 이제 인생 결산의 시기에서 우리 형제들은 부모님의 가르침에 보답하는 길이 사회 기부라고 의견을 모았다"며 "3형제가 모두 서울대 공대를 나온 것도 그 가르침 덕이니 장학금 기부가 부모님 뜻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준 동문이 1966년 설립한 풍국산업은 베트남·인도네시아·미얀마 등지에 공장을 설립해 OEM 방식으로 코치·랄프로렌·아디다스·이스트팩 등 세계 유명 브랜드 가방을 제조·수출하고 있다. 고액기부자 모임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인 이승준 회장의 뜻에 따라 기업 사회공헌 활동도 적극 펼쳐왔다.

11월 28일에는 흥국 특지장학회를 운영 중인 주식회사 흥국(대표 류명준 동문)에서 장학금 1000만원을 추가 기부했다. 흥국은 지금까지 7500여 만원을 기부했다. 기존에 장학금을 기부했던 김승환(제약80-84) 동문과 황열순(해양86-90) 동문도 각각 1000만원을 추가 기부했다. 윤웅재(교육60-64) 동문은 첫 기부로 1000만원을 보내왔고, 이기용(독어교육68-72) 동문은 1000만원 월정기부를 약정했다.

총동창회 후원 '난민 구호' 음악회

내년 1월 7일 미국 UC어바인 캠퍼스 내 바클레이 극장에서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는 '서울대 신년음악회'가 열린다.

이번 음악회는 지난 6월 금난새 동문의 지휘로 월트디즈니 콘서트홀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평화음악회'를 이어가는 사회공헌 공연의 일환으로, 전쟁과 지진 등 세계적 재난으로 고통받는 난민을 위한 성금 모금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인 커뮤니티의 문화 활동 다변화와 한미 친선 교류도 모색하는 이번 공연은 본회와 남가주동창회가 후원하고 금난새 지휘자 연출 아래 '코리아-LA챔버 오케스트라'가 연주한다.

김종섭 총동창회 회장은 "이-팔 분쟁, 러-우 전쟁 등으로 피난민들이 많이 발생했다"며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서울대 동문 모임이 단순 친교에 그치지 않고 난민 지원 등 글로벌 공헌 활동에도 동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별지부록 : 장학금 기부 참여 신청서

관악춘추

보스턴 클러스터와 '관악 밸리'

김광덕
정치 82-86
서울경제신문 부사장·논설실장
본지 논설위원

"글로벌 경제 패권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으려면 'PQ-C' 극대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최근 대기업의 한 최고경영자(CEO)는 필자가 소속된 신문사 논설위원들과 가진 세미나에서 우리 경제의 위기 해법을 이렇게 제시했다. P는 가격(price), Q는 수량(quantity), C는 비용(cost)을 뜻한다. 기업의 제품 가격과 수량을 곱한 뒤 비용을 뺀 수익을 최대화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 글로벌 경기 둔화와 내수 침체 상황에서 판매량 늘리기 전략은 한계에 부딪혔다. 돌파구를 찾으려면 신기술 개발 등으로 가격 조정 능력을 확보하거나 규제·노동 개혁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려 비용을 줄여야 한다.

마땅한 자원이 없는 한국이 우선 추구해야 할 전략은 초격차 기술 개발과 고급 인재 육성이다. 반도체를 비롯해 최소한 10여 개의 전략 산업에서 '세상에 없는 기술'을 개발해 '퍼스트 무버'가 돼야 주요 7개국(G7) 수준의 경제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국립 서울대의 책무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주요 첨단 산업 단지는 인재 양성의 산실인 명문 대학을 기반으로 형성돼왔다.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는 최고의 명문인 하버드대·MIT·보스턴대 등과 연구소들이 주변에 포진해 신기술 개발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인프라를 갖췄다. 새로운 연구 결과를 테스트해볼 수 있는 21개의 대형 종합병원과 1000여개의 바이오 기업, 바이오 전문 벤처캐피털(VC) 등이 밀집해 있다. 반도체 혁신의 중심지인 '실리콘밸리' 인근에는 스탠퍼드대, UC버클리 등이 자리잡고 있다.

우리도 보스턴 클러스터나 실리콘밸리를 벤치마킹해서 서울대 관악·시흥·평창 캠퍼스 등의 주변에 AI(인공지능)·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밸리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서울대도 최근 캠퍼스 통합 개방형 창업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주변에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밸리나 클러스터를 만들어 성공시키려면 정부가 예산·세제 등으로 전방위 지원에 나서야 한다. '균형 발전'을 내세우는 우리 정부는 중국처럼 특정 대학을 전폭 지원하기는 어려우므로 나라 미래를 생각하는 서울대의 많은 동문들이 뜻을 모아 '초격차 과학기술을 위한 지원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서울대가 먼저 논문 쓰기에만 안주하는 행태에서 벗어나 혁신과 도전 정신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누가 조국의 가는 길을 묻거든 눈을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정희성 시인)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학기 장학금 20억원 첫 돌파

올해 1420명에 총 37억원 전달
재학생들과 라오스 의료봉사

5년여 만에 도쿄대 친선교류회
한미동맹70주년 음악회 후원도

2023년 본회의 다양한 사업들. 1. 동문과 함께한 라오스 의료봉사 활동, 2. 본회가 후원한 여자축구 대회 '샤컵' 경기 모습, 3. 장학금 37억여 원 지원, 4. 홈커밍데이, 5. 도쿄대와의 친선교류회.

2023년은 '보람 있고, 유익하고, 즐거운 동창회'를 모토로 본회를 운영해온 29대 회장단의 목표가 가시적인 성과를 맺은 한 해였다.

졸업한 선배들이 먼저 사회에 진출해 이룬 성취를 모아, 뒤따라올 후배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일은 동창회 사업의 기본이자 핵심. 본회는 지난 2학기 때 한 학기 장학금 규모로는 처음으로 20억원을 돌파한 20억6000만원을 지급했다. 수혜 학생 또한 734명으로 역대 최대 금액이자 최다 인원이었다. 이로써 본회는 올 한 해에만 총 37억여 원의 장학금을 장학생 1420명에게 전달했다. 또한 성적, 가정형편 등 기존 장학생 선발 기준에 학생회, 동아리 활동 등을 추가함으로써 학업뿐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통한 리더십 함양을 장려했다.

여자축구 동아리의 '샤컵' 대회 개최에 1000만원을 비롯해 배구·로켓 동아리, 봄·가을에 학교 축제 등 동아리 활동에 총 730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저소득층 중고생 17명 지원

서울대와 서울대인에게 거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자 모교 울타리를 넘어 다양한 기부를 실천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17명을 추천받아 총 150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했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게 1000만원을 후원했다.

당시 김종섭 회장은 본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 도쿄대교우회에도 동참을 독려할 계획이라며 "한일 양국을 대표하는 대학이 앞장서자는 뜻에서 상징적 의미로 우리가 먼저 기여하며 손을 내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화답하듯 재일동포 2세이자 재일본서울대동창회 회장인 김덕길(건축66입) 가네다홀딩스 회장이 5500만원을 쾌척한 바 있다.

국경을 초월한 두 서울대인의 솔선수범 덕분에 지난 11월 10일 본회와 도쿄대학교우회 간의 제3회 친선교류회가 성황리에 막을 올릴 수 있었다. 2015년 11월 도쿄대에서 열린 제1회, 2018년 3월 서울대에서 열린 제2회에 이어 5년 8개월 만에 제3회 친선교류회가 열렸던 것. 애초엔 2년에 한 번씩 양국을 오가며 친선교류회를 개최하기로 했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수년간 미뤄졌었다.

대한민국 대표 지도층인 서울대인의 모임답게 사회공헌 활동의 무대도 세계로 넓혔다. 지난 2월 튀르키예와 시리아 북서부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을 땐 현장 구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0만 달러, 한화 1억2610여만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고, 6월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평화음악회에 2000만원을 후원했다.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평화음악회는 LA 월트디즈니 콘서트홀에서 열렸으며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전우회 회장을 비롯해 2400여 명의 주한미군 전우들과 재미동포 등이 초대받아 금난새(작곡66-70) 예술 총감독이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연주를 감상했다.

모교의 대표 봉사단체인 SNU글로벌사회공헌단과 협력해 동문들이 재학생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기회도 열었다. 신희수(간호16-20)·김성진(의학17-22)·이은규(간호18-23)·이다은(보대원20-22) 등 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젊은 동문 4명이 라오스로 떠나 8월 9일부터 10박 12일 동안 의료봉사 활동을 전개했다. 관악회에서 라오스 봉사활동에 9000만원을 지원했다. 내년 1월 16일에는 '동문과 함께하는 군산 다문화 SNU공헌단' 활동이 계획돼 있다. 3박 4일 동안 동문 단원 4~6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관악회에서 4000만원을 지원한다.

홈커밍 등 모교와 협력 강화

본회는 신년인사회, 정기총회 및 관악대상 시상식, 홈커밍데이 동문 나눔 한마당 등 대규모 친목 행사의 격을 높이는 동시에 골프대회·등산대회·바둑대회·국토문화기행 등 다양한 취미 모임을 열어 회원간 친목이라는 동창회 본연의 목적도 충실히 이행했다.

코로나19 팬데믹 후 4년 만에 열린 신년인사회에선 금난새 동문과 뉴월드 챔버오케스트라가 무대에 올라 격조 높은 클래식 음악을 들려줬으며, 정기총회 때는 모교 동문합창단이 축하 공연을 펼쳤다. 당시 참석 동문들이 휴대폰 플래시를 켜 들고 동문합창단의 노래에 화답하는 모습은 음악이 주는 감동을 배가시켰다. 윤석열(법학79-83) 대통령이 본회에 축전을 보내오기도 했다.

올해 홈커밍데이는 총학생회 임원 12명이 동문들의 참가 접수를 확인할 뿐 아니라 모교 학생회 산하 축제 전담 기구 '축제하는 사람들'이 미니게임을, 학생 홍보대사 '샤:인'이 진행을 맡는 등 재학생들이 전면에 나서 행사를 꾸렸다. 또한 순수미술 '미동(美動)', 환경보호 '씨알', 천체관측 'AAA', 사진 촬영 '영상' 등 각 동아리의 재학생들이 버들골에 부스를 마련해 동문과 동문 가족이 참여하는 코너를 운영했다.

본회는 모교 발전의 일익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2월 21일 유홍림 총장 취임 직후 본회 임원 및 단대·특별과정 동창회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유 총장을 비롯해 김성규(국문81-85) 교육부총장, 김재영(토목공학82-86) 연구부총장, 윤영호(의학84-90) 기획부총장 등 학교 수뇌부가 모두 참석했다. 변주선(영어교육60-64) 상임부회장은 건배사에서 "김종섭 회장은 문리대 출신이고, 유홍림 총장은 그 후신인 사회대 출신이어서 두 분이 합심해 큰일을 이룰 것 같다"고 말했다.

8월엔 본회나 모교 발전재단이나 서울대 발전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에선 마찬가지란 인식하에 '서울대 발전을 위한 나눔골프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동문과 동문 지인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대회에서 김종섭 회장과 박식순(농업교육77-81) 부회장이 각각 1억원을 쾌척하는 등 총 2억3250만 원을 모았다. 이날 함께 라운딩한 김정자(HPM 20기)·이태림(계산통계77-81)·최경아(ALPS 1기) 동문 팀은 팀원 모두 100만원씩 기부를 약정해 눈길을 끌었다.

본회는 서울대인 특유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고자 조찬포럼 및 수요특강을 총 12회 개최했으며 동문 전용 온라인쇼핑몰 'Mall SNUA'를 개설, 회원들에 실질적 혜택을 주고자 노력했다. 1만 회원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Mall SNUA는 악기·가전·신선식품·생활용품 등 4000여 개의 상품을 망라하고 있다. 단대 및 특별과정 동창회는 물론 해외지부, 지방지부와의 네트워크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 초청받은 행사마다 본회 임원진이 빠짐없이 참석했다.

송우엽(체육교육79-83) 본회 사무총장은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도 한결같은 사랑을 보내주시는 동문들께 감사드린다.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경태 기자

서울대 동문 사회적 책무 실천 계속 된다

제178차 상임위원회

내년 사업 계획 및 25억원 예산안 승인

본회는 지난 11월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제178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종섭 총동창회장, 김인규 수석부회장, 이경형 상임부회장 등을 비롯해 상임위원 44명이 참석했다. 재적인원 164명 중 55명은 위임장을 보내왔다. 상임위원회는 본회 회장단과 단과대학·대학원 동창회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송우엽 사무총장의 사업 실적 보고 후 2024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이 상정돼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총동창회는 내년에도 '보람있고 유익하고 즐거운 동창회'라는 모토 아래 서울대 동문의 사회적 책무 실천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동문 참여형 사회공헌 활동 추진 △동문 재능기부 인력풀 구성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유익한 동창회'를 구현하기 위해 회원 우대 혜택을 확대하고, 오페라 및 음악회 영상 감상 등의 문화강좌를 개설할 방침이다. 등산대회, 바둑대회, 가족음악회, 골프대회, 홈커밍데이 등 연례행사는 더 많은 동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강동철(조소93졸) 부회장은 "총동창회의 사회 공헌 활동 등 사회적 책무에 역점을 둔 것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향후 활동 범위를 세계로 넓혀 어려운 지역에도 관심을 쏟는다면 후배들에게도 좋은 교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상임위원들의 요청에 따라 다음 상임위원회부터 총동창회 소관은 아니지만 재단법인 관악회 활동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2023년 결산안은 내년 3월 15일 179차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며, 2024년 예산안 및 2023년 결산안은 내년 3월 정기총회에서 최종 승인된다.

임현진 명예교수, 총동창회장 추대위원장에

제30대 회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회장 추대위원회 제1차 회의가 지난 11월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가운데 임현진(사회67-71·사진) 모교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추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회의에는 27명의 전체 위원 중 12명이 참석했으며, 11명이 위임했다. 회장추대위는 총동창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12명, 단과대학·대학원 동창회장단이 선출하는 동창회장 12명, 모교 총장 추천 3명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총장이 추천한 세 명 가운데 선출한다.

회장 및 감사 모집 공고는 제1차 추대위원회 회의 후 지난 12월 1일 공고해 12월 10일 마감했다.

앞으로 일정은 내년 1월 8~12일 2차 회장추대위원회를 열고 마감 결과를 토대로 회장 및 감사 후보자를 선정하고, 3월 15일 총동창회 상임위원회에서 회장 및 감사 후보자를 승인받는다. 최종 인준은 3월 29일 정기총회에서 이뤄진다. 회장은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 65년 묵은 민법 바꿔야 한다"

양창수 (법학70-74)
민법개정위원장

대담: 오정환 (공법83-87) MBC 국장

지난 6월 민법개정위원회 위원장에 양창수 모교 명예교수가 위촉됐다. 양 위원장은 서울민사지법 판사, 모교 법대 교수, 대법관 등을 역임하고 '민법연구' 도합 10권을 저술하는 등 우리나라 민법학의 최고 권위자로 불린다.

지난 12월 1일 바닥 여기저기에 책들이 쌓여 있는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만난 노 법학자의 표정과 목소리에는 열정이 가득했다. 양 위원장은 "65년 묵은 기본법을 이제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난 6월 민법개정위원장에 위촉되시고 5개월여가 흘렀습니다. 진행 상황이 궁금합니다.

"민법은 사람이 국가 구성원이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재산과 가족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그 규정을 종합한 민법전은 총칙, 물권, 채권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한꺼번에 개정하지 않고 큰 꾸러미로 나눠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일단 계약에 관한 규정들을 한 묶음으로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국민 중에는 '왜 민법을 개정하나'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민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라가 독립했다지만 여전히 일본 민법을 쓰고 있었으니 우리 민법을 가질 필요가 있어 아무래도 좀 서둘렀지요. 전공한 학자도 거의 없었고요. 무엇보다도 1958년 민법이 제정된 뒤로 사회가 매우 많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사회 현상들을 이제 우리 민법에 반영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것은 차치하고라도, 예를 들면 이제 인터넷이니 휴대폰이니 해서 개인에 대한 정보나 평판이 흔하고도 쉽게 퍼집니다. 그런데 민법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보장하는 법적 장치에 대해서 그 침해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는 것에 대해서만 규정을 둡니다. 그러나 오히려 현재 또는 장래의 침해 자체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또 나중에 만들어진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는 보증금에 대한 규정이 여럿 있는데 막상 민법에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등기의 효력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지요. 민법 제정 당시에는 일정 하의 토지조사사업의 문제점이나 전쟁으로 인한 등기부의 멸실 기타를 고려해서 등기 믿고 거래한 사람을 그대로 보호해 주는 법장치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좀 달라질 필요가 없을까요?"

-정부가 1999년과 2009년 두 차례 민법 개정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민법을 개정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먼저 민법학계의 뜻을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민법개정위원회 자체도 1999년에는 위원 수가 너무 적어 동력이 약했고, 2009년에는 오히려 너무 많아 의견 조정이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국회 설득이 어렵습니다. 국회 법사위 위원들 상당수가 변호사인데 본인이 배웠던 것과 다른 법안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또 관련 업계의 의견도 중요하지요. 시간을 두고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할 생각입니다."

-그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겠군요.

"물론이죠. 제가 1999년의 처음 개정 작업 때 총괄간사를 맡았는데, 이게 넓은 의미에서 매우 정치적인 일임을 절감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작업을 하는 일이니까, 국장님 같은 언론인들이 많이 도와주셔야죠(웃음)."

-화제를 바꿔보죠. 위원장님 고향은 제주도인데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청소년기를 보내셨나요?

"할아버지가 일정시대에 서울서 법을 공부하셨고, 아버지도 휘문고보를 나와 동경에 유학하셨지요.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중학교 때는 서울 간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큰 형님 따라서 저도 만 11살에 서울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갑자기 어머니 곁을 떠나 혼자 지내려니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동기들은 다들 같은 초등학교 친구들과 삼삼오오 몰려다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도서관에서 책을 벗 삼으며 지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당시 동아출판사, 정음사, 을유문화사 등에서 세계문학전집 그리고 문고판 등이 쏟아져 나올 때였어요. 실존주의 문학에도 푹 빠졌습니다.

식민사관 청산을 강조하였던 고등학교 국사 선생님의 말씀에 끌려 국사학과에 가려 했는데, 형들이 이공계를 갔으니 너라도 할아버지 뒤를 이으라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 법대에 들어갔죠. 대학 가서도 법보다 문학, 철학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연극판도 기웃거리고 시도 써 봤지만, 결국 소질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3학년부터 불안해져서 친구 따라 절에 들어가 법 공부도 하고 하다가 다행히 1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죠."

-대학 졸업 후 판사로 일하시다가 5년여 만에 서울대 교수로 돌아오셨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독일 유학 시절에 공부에 대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또 서울민사법원에서 배석판사로 재판을 하다 보니 우리 교과서에서 잘 다루지 않는 문제들에 자꾸 부딪혀요. 1970년대 말 80년대 초니까 전에 없던 난문이 적지 않았지요. 부장님들에게 물어보면 도서관 가서 찾아보라고 합니다. 가 보면 책 기타 자료들이 전부 일본 것이에요. 나라가 독립했다는데 실은 아직 식민지잖아요. 우리의 법문제를 설득력 있게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이론을 내 머리로 제시해 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학교로 가게 되었죠."

이때 자신의 저서 '민법연구'에 인용한 다른 교수의 글을 보여주었다. "성문법의 해석 운용에 관한 주류적 발상과 관점이 오늘날까지도 일본 법학의 것을 일방통행으로 면세 수입한 것임을 자꾸만 느끼게 되어 우월한 인방 법률문화의 정신적 외판원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각성을 강요당하게 되었다." 법학자들의 오랜 고민과 과제를 보여주는 말이다. 그런 사명감으로 교수의 길을 걸은 양 위원장은 서울대 재직 기간 제자들에게 엄한 스승이자 탁월한 이론가이며 쉬지 않는 학자로 기억됐다.

보증금·부동산 등기효력 등 현실 반영 못해
총칙·물권·채권…꾸러미로 나눠 진행 예정
법관은 감수성·상상력 풍부해야
로스쿨제도 사법고시와 같은 길 갈까 걱정

-2008년에 첫 학계 출신 대법관으로 임명되셨는데요, 임기를 마친 뒤에 대법원의 과도한 사건 부담에 대해 지적하신 글을 읽었습니다.

"제가 대법관으로 처음 부임했을 때 대법원이 다룬 본안사건만 연간 2만 8000건이에요. 대법관이 12명이니까, 한 명당 연간 2400건 정도를 다루는 거죠. 6년 뒤 퇴임할 무렵에는 대법관 한 명당 연간 3200건으로 늘었어요. 1년 365일을 일해도 매일 10건은 판단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많은 국민이 3심까지 법원 판단을 받아보고 싶어하지만, 이래서는 재판이 제대로 안 됩니다. 또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뀌었는데, 그전 50년대, 60년대 만들어진 판례에 기대는 일도 있어요.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려면 전원합의체를 열어야 하는데, 앞서와 같은 상황에서 힘이 매우 많이 드는 전원합의체 재판을 쉽사리 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급심 재판을 충실하게 하는 방도를 강구하고, 결국은 다른 나라들처럼 상고허가제를 도입해서 그걸 담당하는 법관을 따로 두어야지요. 요즈음 대법원이 민사·가사·행정 등 사건에 채택하고 있는 심리불속행제도 아래서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게 되는데, 그 비율이 현재 70%를 넘습니다."

-법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판사들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다른 판결을 내린다고 보는 시각들도 있는데요.

프로필

▲1952년 10월 제주 출생 ▲서울고, 모교 법대 ▲사법시험 16회(사법연수원 6기) ▲육군 법무관 ▲서울민사지법 등 판사 ▲베를린자유대 유학 ▲모교 법대 교수 ▲대법관 ▲민사판례연구회, 한국민사법학회, 민사실무연구회 각 회장 ▲검찰수사심의위원장 ▲동경대 특임교수 ▲현재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 법무법인 지경 고문변호사

"재판은 법을 구체적인 사건 즉 실제의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것인데, 법은 그걸 적용하는 사람에 따라 변할 수 없는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법이론에서는 법의 '이데올로기성'이라는 것을 극력 주장하고 있고, 특히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 특히 민주화 과정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그에 좇는 이들이 적지 않지만, 저는 이것을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법조인에게 감수성이 필요한가요?

"법을 제대로 운용하려면 사람 마음의 구조나 그 생각 또는 행동의 문법을 매우 민감하게 포착해야 합니다. 우선 아까 재판이란 법을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인 사건에서 과연 사실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려면 사람 일에 대한 감수성 또는 상상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이 사실 인정에 대하여 '경험의 법칙에 따라서' 하라고 정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위증죄, 그러니까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자신이 아는 바와 고의적으로 다르게 증언하는 범죄가 다른 나라보다 비율적으로 매우 많다고 하는데, 증언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또한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국면에서도 결국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과서에 밑줄 치고 외우는 것만으로 좋은 법조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대법관 퇴임 후에 한양대 로스쿨 교수도 역임하셨는데, 로스쿨 제도가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법시험만으로 제대로 된 법조인을 양성할 수 없어서 로스쿨을 도입했지요. 그런데 지금 로스쿨제도 아래서는 통상 초시(初試)라고 부르는 맨 처음 보는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에서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얻어도 좋은 일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스쿨 3년 내내 오직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법 공부의 목표로 삼는 경향이 있지 않나 우려가 됩니다. 모든 시험에는 거기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한 말하자면 수험테크닉이란 게 따르기 마련이지만, 제대로 된 법 공부가 그 바탕이 되어야지요. 결국 사법시험제도가 폐지되기에 이른 경로와 비슷한 길을 가고 있지 않은가 걱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보람됐던 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젊었을 적에 어느 책에서 읽은 건데, '사람은 사랑하고 일하기 위해서 산다'는 말이 뇌리에 깊이 남았어요. 사랑의 측면은 말씀을 삼가기로 하고, 일 측면에서는 1992년부터 2019년까지 논문집 '민법연구' 도합 10권을 낼 수 있었던 걸 들고 싶습니다만 어떨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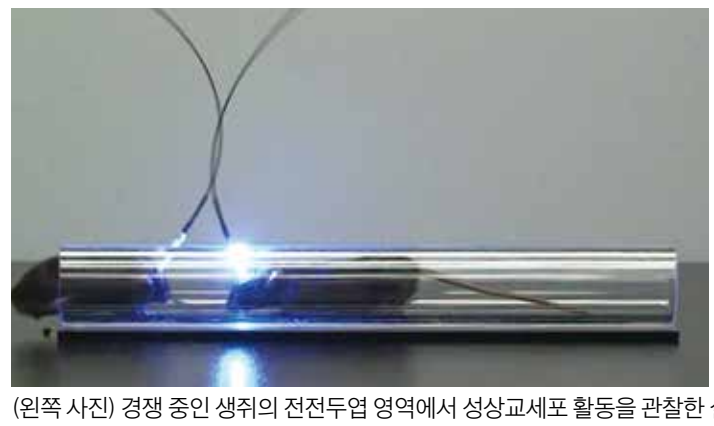
정리=김남주 기자

2023년 12월 15일 제549호

뇌과학·미디어·로봇…세계가 주목한 연구자

지난 11월 모교는 탁월한 연구 업적을 보인 10명의 모교 교수에게 학술연구교육상 연구부문을 시상했다. 모두가 유망한 연구지만, 특히 시대의 첨단을 달리는 뇌과학·미디어 심리학·로봇 분야에서 각각 성과를 이뤄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세 명의 연구자를 본지에서 인터뷰했다. 이들 3명 외 수상자 7명은 다음과 같다. 권용태(동물80-84) 의과학과 교수, 김동일(교육83-87) 교육학과 교수, 김창영(물리84-88) 물리천문학부 교수, 조제열(수의학85-89) 수의학과 교수, 윤석화(경영88-92) 경영학과 교수, 김태균(사회91-98)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교수, 장호원(포항공대99졸) 재료공학부 교수.

박수진 기자



(왼쪽 사진) 경쟁 중인 생쥐의 전전두엽 영역에서 성상교세포 활동을 관찰한 실험 장면. (오른쪽) 드론의 로터 기술을 적용한 거대 로봇 팔 '라스드라'.

경쟁심 유발·불안 조절 '신경교세포'의 재발견

이성중 (미생물87-92) 모교 치의학대학원 교수

길다란 원통 모양 튜브 양끝에 한 마리씩 쥐를 놓는다.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두 염소처럼, 튜브 중간에서 만난 쥐들은 힘겨루기를 시작한다. 어떤 쥐는 밀고 버티며 튜브를 차지하지만, 어떤 쥐는 끝내 밀려난다. 경쟁을 통해 쥐의 '서열'이 확인되는 이 튜브 테스트 장면은 인간 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경쟁에서 이기는 쥐는 뭐가 다를까. 신경생물학자인 이성중 교수는 뇌의 신경교세포에서 답을 찾았다. 이 교수 연구팀은 8월 "생쥐가 다른 생쥐들과 경쟁할 때 뇌 전전두엽 영역에서 신경교세포의 일종인 성상교세포가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발표했다.

어떻게 이런 연구를 하게 됐냐는 질문에 이 교수는 "경쟁심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전전두엽에서 신경교세포의 기능에 대한 의문이 먼저였다"고 했다.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우월행동에 전전두엽의 신경세포(뉴런)이 관여함은 10여 년 전에 보고된 사실. 그러나 이번 연구로 경쟁심 같은 고위 뇌 기능이 신경세포가 아닌 '신경교세포'에 의해 조절됨이 처음 밝혀졌다. 뇌세포라고 하면 뇌에서 전기신호를 전달하는 신경세포만 떠올리지만, 사실 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신경교세포다. 신경세포와 상호작용하며 시냅스의 가소성을 조절하고, 신경계 내 면역·염증반응을 조절하는 기능도 있지만 뉴런을 보조하는 역할로 인지되며 신경과학 연구에선 오랜 시간 '조연'에 불과했다.

이 교수도 처음엔 미국 앨라배마대에서 신경면역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모교에서 구강·안면 등의 신경병성 통증에 신경교세포가 관여함을 밝혀냈다. 그러다 의문이 들었다. "중추신경계의 60~90%를 차지하고 뉴런보다 10배나 많은데, 더 많은 기능이 있지 않을까?" 뇌 영역별로 신경교세포의 다채로운 기능을 밝히는 연구를 시작한 계기다.

첫 성과로 해마 영역에서 성상교세포의 불안 조절 기능을 발견해 작년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발표했다. 다음엔 생쥐의 전전두엽에서 성상교세포의 활동성을 실시간 모니터링했다. 사회적 서열이 높은, 즉 경쟁 끝에 튜브를 차지한 생쥐는 성상교세포 활동성이 더 컸다. 심지어 해당 성상교세포의 활동성을 증가시키고 억제함에 따라 정해진 서열이 역전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성상교세포 하나가 몇십만 개의 시냅스를 감싸면서 마치 두 사람의 말을 중간에서 전해주듯 신호의 중요도를 파악해 양쪽 뉴런에 보내준다"고 했는데, 이 경우 성상교세포가 주변 신경세포의 흥분성과 억제성 시냅스 신호 균형을 조절함으로써 경쟁심과 우월행동에 관여했다는 분석이다. 경쟁에 승리한 생쥐들이 사실은 "잘 밀어서가 아니라, 상대가 밀 때 뒤로 물러나지 않고 잘 버텼기 때문에 이기더라"는 연구진의 관찰은 흥미롭다. 성상교세포를 자극한 2등 쥐에게 거듭 패배를 경험한 1등 쥐는 우울 증상을 보이기도 했다. "인간이라고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신경교세포는 이제 뇌 기능에서 '공동 주연'으로 올라섰다. 이미 파킨슨, 알츠하이머 등 퇴행성뇌질환은 물론 자폐증·우울증·조현병 등에서 핵심 역할이 밝혀져 구체적인 기전을 파악하는 단계다. 그의 실험실에서도 전전두엽 영역 신경교세포가 우울증에 관여한다는 데이터가 나왔다. 향후 신경교세포를 타깃으로 한 치료약이 개발될 수도 있다. 이 교수는 "앞으로 신경교세포의 어떤 무궁무진한 기능이 밝혀질지 궁금하다"며 계속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댓글이 여론 지각 결정 확인

이은주 (신문90-94) 모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페이스북, 트위터, 온라인 뉴스 댓글과 쇼핑몰 상품평…. 이은주 언론정보학과 교수의 주요 연구 대상이다. 이은주 교수는 미디어 심리학자이자,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및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연구자다. SSCI 논문만 56편을 발표했다. SSCI는 사회과학 분야의 SCI급 학술지를 가리키는 만큼 심사가 까다롭다. 이 교수는 이중 단독으로, 또는 제1저자로 쓴 18편을 비롯해 총 22편을 커뮤니케이션 분야 톱3 저널에 게재했다. 비영어권 학자 최초로 '휴먼 커뮤니케이션 리서치' 편집위원장을 역임하고, 2019년 언론정보학 분야 최고 권위 학술단체인 국제커뮤니케이션학회(ICA) 종신석학회원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 회장에 취임했다. 스탠퍼드대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교수는 디지털 기술이 근간이 되는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이면을 살핀다. 어떤 인지적·심리적 매커니즘이 작용해 참여자들의 지식과 신념, 태도, 행동에 영향을 주는지 탐구한다. 그리고 '왜' 특정 효과가 발생하는지 이론적 설명을 제시하려 한다.

이 교수가 했던 한 실험은 온라인 저널리즘 시대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똑같은 내용의 포털 사이트 기사를 △댓글이 없는 원본 기사 △댓글 없이 비추천 횟수만 높은 기사 △기사 내용에 반대되는 댓글들이 달린 기사의 3가지 유형으로 피험자에게 보여줬다. 그 결과 비추천이 많다고 해서 여론이 기사 내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지각하진 않았으나, 기사 내용과 반대되는 댓글은 여론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다만 댓글이 본인의 의견에 미치는 영향은 인지 욕구가 낮은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언론이 여론의 향배를 정했다면, 이젠 댓글이 분석적 사고를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그 역할을 대신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커뮤니케이션학의 고전 이론인 '침묵의 나선 이론'을 인용, "사람들은 사회적 고립을 두려워해서 소수라고 생각하는 의견을 드러내지 않는다"며 "표현되지 않은 의견은 존재하지 않는 의견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소수집단에 대한 혐오 발언에 반대를 표현하고, 적극적인 연대와 지지 표현 등으로 이를 교정하려는 시민정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혐오 발언은 다른 사회구성원에 대한 신뢰를 뜻하는 사회자본을 붕괴시키지만, 사회자본이 두터워야 공동체가 지속, 번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혐오의 시대에 함의하는 바가 커서일까. 이 교수의 '뉴스 댓글 연구'는 커뮤니케이션 분야 3대 국제학술지인 '커뮤니케이션 리서치'와 '휴먼 커뮤니케이션 리서치' 등에 게재돼 각각 수백 회 인용됐다.

최근엔 허위조작정보(가짜 뉴스) 연구와 AI 기반 저널리즘 연구를 진행 중이다. 어떤 사람들이 허위정보에 취약한지,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어떤 요인이 사람들을 취약하게 만드는지 검증하고 있다. 또 '사람들은 AI가 작성한 기사를 더 믿을 만하다고 평가하는지', 'AI가 팩트체크한 기사는 사람들의 확증편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지' 등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

그는 "지금까지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소통의 다양한 형태를 탐구해 왔지만, 목적은 한결 같았다"고 말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현상 기저의 과정을 밝혀내고, 타당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 새로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고전적 이론과 개념들을 동원하고, 커뮤니케이션학 하위 학문들의 구획을 넘나드는 것에 매력을 느낀다고 말했다.

드론 접목 거대 로봇팔, 공중작업 척척

이동준 (카이스트95졸) 모교 기계공학부 교수

가늘고 가벼운 골격의 로봇 팔이 공중에서 모양을 바꾸며 밸브를 잠그고 물건도 옮긴다. 이동준 교수가 개발한 거대 로봇 팔 '라스드라(LASDRA)'다. 현재 7m까지 늘어나는데, 가반하중(운반·이동이 가능한 무게) 2~3kg을 너끈히 버틴다. 비결은 드론이다. 모터나 유압으로 힘을 얻는 로봇 팔은 길이가 길어질수록 그를 지탱하기 위해 무게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교수는 세계 최초로 로봇 팔에 드론의 로터 기술을 적용해 이를 극복했다.

이 교수는 미네소타대 박사 졸업 후 동역학 해석과 제어 기술을 적용한 로봇을 연구해왔다. 처음엔 드론 자체를 다양하게 설계해 공중작업을 시도했다. 서랍을 열거나 물건을 밀어내는 작업을 곧잘 해냈지만, "배터리와 모터 기술의 큰 혁신 없인 제대로 된 공중작업이 요원하겠다"고 판단했다. "로봇을 날려서 작업하기보다, 로봇 자체를 크게 만들어 공중작업을 해보자는 발상의 전환"의 산물이 라스드라. 1m짜리 막대 링크 양쪽에 드론을 달고 관절처럼 쪽이었다.

참고문헌도 없는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이었다. "드론 기반이라 가벼우면서 자유도(로봇 동작의 자연스러움)도 커야 하는 조건을 동시에 맞추는 게 제일 어려웠고, 전선이 길어지면서 전압이 떨어져 제어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여러 시도 끝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면서 매우 길게 늘릴 수 있고, 자유도도 높은 로봇이 나왔다. 현재 링크 7개 기준 14자유도까지 구현되는데, 보통의 산업용 로봇(6~7자유도) 두 배 가량이다. 발전소나 공장 등 실내 환경은 물론 바람이 잔잔한 날엔 야외 작업도 가능하다. IEEE가 주최하는 세계 최대 로봇학회 ICRA에서 두 차례 발표했고, "현재 라스드라 두세 개를 함께 쓰는 양팔·다중팔 작업, 정유공장처럼 파이프가 많은 공간 속에서 밸브 잠그기 등 실제 같은 작업을 구현하고 있다"고 했다.

원격 로봇 조작 기술, 메타버스 핵심 기술인 손동작 트래킹 분야도 연구의 한 축이다. 이 교수 연구실에서 개발한 손동작 추적 기술 'VIST'가 탑재된 햅틱 글로브를 지난해 CES에 선보였고, 기업들에 기술이전을 하기도 했다. 기존의 손동작 추적 기술은 카메라나 관성센서와 지자기센서를 사용해 사람의 손동작을 추적했다. 그러나 카메라 시야가 가려지거나, 집는 물체가 드릴이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 전류가 흘러 자기장이 왜곡되는 문제가 있었다. VIST는 자기센서 대신 카메라를 관성센서와 함께 사용해 해당 문제를 해결했다.

VIST 기술이 적용된 장갑을 끼면 현실의 다채롭고 정교한 손동작이 가상현실에서 그대로 구현된다. 달걀을 집어 굴리거나, 구멍 모양에 맞춰 물건을 집어넣는 일도 할 수 있다. 그는 "메타(Meta)사의 VR기기 '퀘스트'에서 불가능한, 양손으로 깍지를 끼거나 하는 동작도 VIST에선 가능하다. 빠른 손동작을 추적하는 우리 연구가 진전되면 메타버스 안에서 커브볼도 던질 수 있다"고 말했다. 로봇과 가상현실, 스마트 공장, 재활 등의 분야에서 상용화 가능성을 보여준다. 기존 제품 대비 가볍고 저렴하며 정확도도 높다.

고도의 손동작 추적 기술은 실제세계와 똑같은 '차세대 메타버스' 시대를 여는 열쇠와 같다. 그는 "우리 실제 세계와 상호작용을 흥미진진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은 결국 손과 손가락의 사용"이라며 "이 기술이 한 단계 도약한다면 실제 세계를 통합하는 진정한 메타버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 모교에 10명

방영주

현택환

임석아

김동완

이태우

김대형

최장욱

류영렬

김해겸

하성민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 발표

미국의 학술정보 데이터 분석기업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전 톰슨 로이터)가 11월 15일 발표한 ‘2023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Highly Cited Researchers, 이하 HCR)’에 모교 소속 연구자 10명이 선정됐다.

올해 클래리베이트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1년간 논문이 피인용된 횟수를 바탕으로 상위 1%에 해당하는 연구자를 HCR에 선정했다. 단일 분야 피인용 횟수가 상위 1%에 못 미쳐도 여러 분야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면 ‘크로스필드(융합)’ 부문으로 선정한다. 클래리베이트는 노벨상 수상 예측 후보도 발표하는 만큼 HCR로 선정된 연구자는 노벨상에 도전 가능한 이들로도 해석된다.

올해 전 세계 67개국에서 총 6849명이 선정된 가운데, 국내 연구자는 65명이 선정됐다. 모교를 1소속으로 둔 연구자는 4개 분야에서 10명이 선정됐다. 모교와 타 대학·기관 소속을 합해 HCR로 선정된 모교 동문은 27명이다.

현택환(화학83-87) 화학생물공학부 석좌교수는 올해로 10년 연속 HCR에 선정됐다. 재료화학 분야에서 선정된 현 교수는 균일한 나노입자인 양자점을 대량으로 합성할 수 있는 ‘승온법’을 고안했다. 양자점은 올해 노벨화학상 수상자들의 연구 분야이기도 하다.

재료과학 분야에서 김대형(응용화학96-00)·최장욱(응용화학96-02) 화학생물공학부 교수도 선정됐다. 유연 전자 소자(soft electronics)를 연구해온 김대형 교수는 최근 공동연구를 통해 외부 전원 없이 안정적으로 광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친환경 양자점 광센서와, 피부 위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웨어러블 맥박센서를 구현했다. 최장욱 교수는 배터리 분야의 석학이다. 차세대 나트륨이차전지, 마그네슘이차전지용 전극소재를 개발하고 있으며, 서울대-현대차 배터리 공동 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

미생물학 분야에선 하성민(대학원13-19) 동문이 선정됐다. 현재 UCLA 박사후 연구원인 하 동문은 유전체 집합체,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비교유전체학, 계통발생학 등 다양한 생물정보학 도구와 방법을 활용해 대규모 유전체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혁신적인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구현했다.

임상의학 분야에는 전·현직 모교 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3명이 올랐다. 위암 표적항암제와 면역항암제의 치료 효과를 세계 최초로 입증한 방영주(의학73-79) 명예교수, 표적항암제의 치료를 규명해 폐암 환자의 수명을 5배 연장시킨 김동완(의학89-94) 교수, 유방암 국제 임상 시험을 선도한 임석아 혈액종양내과 교수가 뽑혔다.

크로스필드 분야에선 김해겸(대학원11-15) 동문과 류영렬(조경97-03)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이태우 재료공학부 교수가 선정됐다. 김해겸 동문은 차세대 배터리를 연구한다. 탄소를 기반으로 한 이차전지를 만들어왔고, 현재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에서 플루오린과 인산, 바나듐을 합친 화합물로 칼륨이온배터리용 양극재를 개발하고 있다. 류영렬 교수는 농생대에서 나온 첫 HCR 연구자다. 농림생태계의 탄소순환에 대한 글로벌 초학제적 연구를 진행해왔다.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우주위성센서의 광합성 알고리즘을 개발했으며, 차세대중형위성 4호의 광합성알고리즘개발 책임을 맡고 있다. 슈미트 퓨처 재단의 지원하에 차세대 식생모형개발 국제컨소시움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태우 교수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인 페로브스카이트 발광체를 연구해왔다. 상온에서 세계 최초 가시광 영역 다색 발광 다이오드를 개발한 이후, 페로브스카이트 나노 입자의 결함 제어를 통해 페로브스카이트 발광 다이오드의 발광 효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상용화 가능성을 높이는 연구를 해왔다.

세계 대학·연구 기관 중 1위는 소속 연구자 270명이 선정된 중국과학원으로, 매년 1위였던 하버드대(237명)를 제쳤다. 3위는 스탠퍼드대(106명)였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669명, 중국이 1275명, 영국이 574명을 배출했다. 박수진 기자

기숙형대학 LnL, 내년에도 계속된다

올해 처음 모교에 도입된 기숙형대학(이하 RC) LnL(living and learning)이 1년의 시범 사업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된다. 최근 대학신문은 최근 LnL 사업운영단(단장 최정권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이 2024년 LnL 규모를 확장해 시범 사업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LnL은 교육과 생활을 통합한 서울대형 RC다. 올해 초 LnL 전용으로 개보수한 관악사 906동에 신입생을 비롯한 학부 재학생과 대학원생 조교 등 248명이 입주해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입주생들은 명사의 강연과 토론회로 구성된 ‘관악모둠강좌: 공동체’, 자유 주제로 프로젝트 활동을 하는 ‘학생자율세미나’ 등 교과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각종 문화 체육 강습과 북토크 등 비교과 프로그램도 참여했다. ‘진정한 자치 공동체를 만든다’는 기조 아래 LnL에선 다른 기숙사와 달리 토론을 거쳐 입주생들이 직접 생활규칙을 정하고, 공동체 활동도 왕성하게 벌이는 등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기도 했다.

내년 LnL은 기존에 쓰던 관악학생생활관 906동에 919D동을 추가해 운영한다. 919D동은 3개 방을 6인이 나눠 쓰며 거실을 공유할 수 있는 구조다. 참여 인원도 첫 해의 두 배인 500여 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모교는 기숙사 7개 동을 재건축해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LnL을 운영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12월 4일 ‘관악학생생활관과 LnL’을 주제로 열린 ‘총장과의 대화’에서 유홍림 총장은 “내년에 확대되는 LnL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나머지 기숙사 동 재건축시 공간 구성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침 거른 모교 학생, 대사증후군 더 위험했다

모교 학생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아침식사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아침식사를 거의 하지 않는 학생은 매일 아침을 먹는 학생보다 대사증후군 발병 위험이 1.7배 높았다.

조희경·정수민 모교 가정의학과 교수와 김효명 모교 병원 전문의 공동 연구팀은 2016~2018년 모교에서 학생건강검진을 받은 18~39세 남녀 대학생 1만2302명을 대상으로 아침식사 현황과 아침 결식이 대사증후군 발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모교 학생 중 56.8%에 해당하는 6981명이 아침식사를 주 4회 이상 거르고 있었으며, 아침식사를 매일 하는 학생들은 2152명이었다.

이같은 식사 패턴으로 나눈 그룹에서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다르게 나타났다. 매일 아침을 먹는 학생들은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1.7%였지만, 결식하는 그룹은 3.1%로 1.7배 더 높았다. 조희경 교수는 “아침식사를 자주 거르면 점심, 저녁, 야식 등을 먹을 때 식후 혈당 반응이 더 커지고,

모교 학생식당에서 판매하는 천원의 식사

이로 인해 식욕 조절이 어려워져 과식을 불러옴으로써 대사증후군 발병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대사증후군을 방치하면 당뇨병, 심뇌혈관질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청년기 때부터 건강한 식사 습관을 형성하며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교가 2015년 학생식당 아침 메뉴로 ‘천원의 식사’를 시작한 취지도 아침 결식률을 줄임으로써 학생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었다. 모교는 적자를 무릅쓰고 점심과 저녁까지 천원의 식사를 확대했으나 최근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예산 부담이 커졌다. 이에 최근 지속 가능한 천원의 식사를 위한 모금 운동 ‘천원의 식사’를 시작해 후원을 받고 있다.

IEEE DiscoveryPoint Communications(IDPC)

IEEE DiscoveryPoint for Communications

IEEE가 만든 첨단 통신산업 R&D를 위한
All-in-One Platform

IEEE Full-text를 포함한 다양한 양질의 자료 제공
최첨단 연구를 위한 자료, 표준, 공급업체를 위한 솔루션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검색가능
5G, 6G, Edge, Computing, IoT 등 다양한 통신기술 분야의 자료중 전문적으로 선별된 컨텐츠 제공
설계 문제에 대한 솔루션 제공하여 실무 엔지니어에게 최적화

IEEE Authorized Dealer in Korea
키티스 産學硏情報(株)
KITIS Info. & Co., Ltd.
www.kitis.co.kr / T. 02 3474 5290

우승 전력 8회 동의대 19대 17로 꺾고 웃었다

12월 2일 제63회 전국 대학 미식축구 선수권대회 결승전 후 그린테러스 선수와 OB 동문들이 우승 기념 사진을 찍었다.(아래) 동의대 팀 진영을 돌파하는 모교 선수. 사진=박경규 동문

대회 전 매일 2회 고강도 훈련 그린테러스 OB들도 열띤 응원

〉〉1면에서 계속

1947년 창단한 모교 미식축구부는 1968년부터 1973년까지 대학선수권대회에서 연속 우승했지만 이후로는 우승 소식을 전하지 못했다. 근래 선수 인원이 늘어나고, 체계적인 훈련이 자리잡히며 전력이 강화됐다. 강보성(체육교육01-05) 감독의 지도 하에 주 3일 저녁 정규훈련과 방학 합숙 훈련을 해온 이들은 대회를 앞두고 매일 아침저녁으로 훈련량을 늘리고 작전 세미나까지 소화했다. 선수들은 원정 경기 이동 비용 등으로 사비도 적지 않게 썼다. (본지 548호 '동아리 탐방' 참조)

결승전 관객석에선 그린테러스 OB 동문 30여 명이 열띤 응원을 펼쳤다. 이 중 20명은 서울에서 버스를 대절해 찾아왔다. 1968년 우승 주전이었던 박경규(농학66-73 경북대 교수) 전 대한미식축구협회장도 함께했다. 오세영(경영01-08) 동문이 이끄는 OB회는 그린테러스 활동에 열렬한 격려와 지원을 보내고 있다. 국가대표 미식축구 선수였던 강보성 감독은 본업인 체육교사와 병행해 열정적인 지도를 펼쳐 이번 대회에서 지도자상을 받았다.

대회 MVP를 받은 정진욱(의류18 입) 주장은 "전국 대학 팀 중 시즌 마지막 경기를 웃으며 끝낼 수 있는 단 한 팀이 우리 그린테러스라 자랑스럽다"며 "이번 시즌 시작부터 전국 우승을 반드시 이뤄내자며 열심히 훈련했다. 최선을 다해 지도해주신 감독님, 서울에서 군위까지 오실 만큼 응원과 관심 아끼지 않으신 선배님들, 좋은 선수들이 모여서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은 것, 이 모든 것들이 모여 값진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OB 김갑철(잠사68-72) 동문은 "역전될 수도 있는 막판 위기 상황에서 서울대인의 간절함이 통했는지 패스를 가로채는 데 성공했다. 순간 눈물이 핑 돌고 관중석의 선배들과 운동장의 후배들 모두 팔짝팔짝 뛰었다"며 기뻐했다. 한편 "미식축구에는 조직·협력·희생·봉사·준법·합리·투지·끈기 등 서울대인이 배워야 할 철학이 들어있기에 선배들이 작은 힘이라도 보태려 한다"며 "선수가 족히 40명은 있어야 하는데 인원, 장비, 부실, 비용 등 어려움이 많다"고 동문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박수진 기자

이광희·서동신 부부 총 10억원 기부

왼쪽부터 이광희 동문과 부인 서동신 여사, 유홍림 모교 총장.

이광희(지리59-63) 동문과 부인 서동신 여사가 최근 '육지수 이광희 장학기금' 3억원을 모교에 추가 기부했다.

이 동문은 2010년 은사인 고 육지수 지리학과 교수를 기리기 위해 2010년 장학기금을 설립, 이번 기부금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10억원을 기부했다. 이 동문이 입학하기 직전 모교에 지리학과를 신설한 이가 육지수 교수다. 뛰어난 경제지리학자였던 육 교수는 지리학과 초대 주임교수와 학과장을 맡았다. 이 동문은 지리학과 2회 졸업 후 한국관광공사 기획관리본부장과 부사장에 이어 국제관광기구인 ASTA(미주여행업협회) 한국총회 전담 사무국장을 지냈다.

이날 열린 협약식에서 이 동문과 서동신 여사는 "무엇보다 자녀들이 적극 지원해 줘 꾸준히 기부할 수 있었다"며 "우리 부부에게 진정한 나눔의 실천은 자녀들에게 금전적인 자산을 남기는 것보다 더 큰 정신적 가치를 물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동문의 뜻에 따라 모교는 지리학과는 물론 경제학부와 정치외교학부 인재들로도 장학기금 규모와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11월 14일에는 이영남(약학64-68) 충북대 명예교수가 약학대학 '관산 이영남 약학사 발전기금'(부동산) 1억5800만 원을 쾌척했다. 이 동문은 기존에도 약학대학 신약개발센터 건축기금 등을 기부해 왔다.

이 동문은 모교 졸업 후 약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나 미국에서 미생물학 석박사 학위를 받고 순수 과학의 길을 걸었다. 연세대 의대 교수, 영국 국립의학연구소 연구원, 충북대 미생물학과 교수, 한국미생물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2015년 일흔의 나이에 서울시립대 국사학과를 졸업한 데 이어 고려의학사로 석사학위를 받고 한국 근대 약학의 역사를 연구하고 있다. 이 동문은 "사랑하는 후배들이 각자의 분야에만 머무르지 않고 도전을 거듭하며 한계를 극복하는 융복합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류학과 재학생들, 국제학회 최우수 논문상

모교 의류학과 재학생들이 한국 대학 최초로 국제의류학회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모교 의류학과 이수민 박사와 이소현 박사과정생은 11월 8~11일 미국 볼티모어에서 열린 국제의류학회에서 각각 박사와 석사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이수민씨의 연구 주제는 손가락 관절 동작 등의 손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웨어러블 장갑. 형상기억합금을 니트 구조로 설계해 기존의 소재적, 기계적 한계를 극복하고, 인체 움직임을 모사해 뛰어난 재활 기능성과 최적의 착용감을 갖도록 했다. 이수민씨는 "장애인을 위한 웨어러블 장비가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지만, 실제로 사람이 착용하기 매우 불편한 경우가 많아 인간중심적 디자인 접근 방식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소현씨는 노년층 여성을 위한 인체공학적 스포츠웨어 설계 방법을 개발했다. 최신 3D 입체패터닝 기술을 활용해 노년 여성의 인체 구조에 최적화된 운동용 레깅스를 만드는 설계 방법으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시니어 여성들이 운동할 때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실용성을 인정받았다. 이소현씨는 "세계 여성들이 레깅스에 열광하는 이유는 특유의 편안함과 활동성 때문인데, 막상 건강관리가 필요한 노년층 여성들은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개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두 수상자 모두 웨어러블인간공학 전문가인 박주연(의류93-97) 모교 의류학과 교수의 지도를 받았다.

1935년 설립된 국제의류학회는 의류학 분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권위 있는 학회로 꼽힌다. 학회 측은 "특정 학교 학생들이 우수학위 논문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일은 극히 드물지만, 연구의 독창성과 파급력을 고려해 첨단 기술 활용이 돋보이는 서울대 학생들의 논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성철 평의원회 의장 선출

모교 평의원회는 지난 11월 1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제18기 신임 의장에 김성철(전기공학80-84 사진 왼쪽)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를 선출했다. 모교 졸업 후 미국 뉴욕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김 교수는 모교 평의원회 부의장, 연구처장, 산학협력단장 등을 역임했다. 부의장에는 김도순(농학85-89) 농림생물자원학부 교수를 선출했다.

11월 26일에는 모교 국가미래전략원장에 김준기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교수(사진 오른쪽)가 임명됐다. 김 교수는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정책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회예산정책처장을 역임했으며, 재무행정, 정부-기업관계 등을 연구하고 있다.

모교 단신

익명 기부자, 공대 휴식공간 조성에 3억원

지난달 공과대학에 한 익명의 기부자가 재학생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3억원을 기부했다. 해당 기부자는 "서울공대 발전과 더불어 우수한 과학도 양성에 많은 기여를 부탁한다"는 뜻을 전했다. 공과대학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학생들의 정서적 건강 증진을 위한 특화공간을 조성해 학생상담센터와 휴식·수면공간을 운영하는 데 기부금을 사용할 예정이다.

재학생 개발팀, 자체개발 인디게임 공개

모교 자유개발동아리 UPnL(유피넬) 소속 재학생 10명이 결성한 개발자 팀 '라비타스튜디오'가 이달 초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오프라인 인디게임 전시회 '버닝비버 2023'에서 직접 제작한 게임 '중력미로'를 선보였다. 중력을 조작하여 공을 탈출시키는 퍼즐 게임으로 넥슨 드림 멤버스 게임 제작발표회 1등, 인디크래프트 공모전 상위 50위 선정 등의 성과에 힘입어 이번 전시에서 데모 버전을 공개했다. 안드로이드 모바일 게임 정식 출시도 준비 중이다.

총학 선거, 투표율 미달로 내년 재선거

11월 13~17일 진행된 제64대 모교 총학생회 선거가 역대 최저인 24.4%(가투표수 3946표)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무산됐다. 이번 선거에는 '파도' 선거운동본부가 단독으로 입후보해 학점포기제 신설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투표율이 재적 회원 과반수를 넘기지 못하고 연장투표 없이 선거를 종료했다. 공석인 총학생회 직무는 재선거를 치르는 내년 3월까지 단과대학생회장 연석회의가 대행한다.

시흥캠퍼스 카카오 데이터센터 설립 무산

카카오가 모교와 함께 추진하던 시흥캠퍼스 내 인터넷데이터센터(IDC) 건립이 최종 무산됐다. 카카오는 모교와 지난해 4월 2024년 시흥캠퍼스 내 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한 MOU를 맺었다. 2024년 시흥캠퍼스 내 약 7200평 부지에 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장기간 협의해왔지만 최근 계획을 철회했다. 무산된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취약지역 지진 안정성 공동연구 참여

모교를 비롯한 대학과 정부출연기관 등 5개 기관이 AI 기술과 결합해 노후 취약 지역의 지진 안정성 확보를 위한 융합연구를 추진한다. 모교는 11월 15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울산과학기술원 등과 함께 이러한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연구 대상 지역은 국내외의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도심지 내 노후 취약 지역과 저층 연립주택 밀집 지역 등 지진 발생시 큰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이다. 모교는 울산과학기술원과 AI기술 및 지진 발생 시 회복탄력성 등의 공동연구를 펼칠 예정이다.

수소모빌리티 이니셔티브 개소

모교는 11월 23일 관악캠퍼스 차세대자동차연구센터에서 수소모빌리티 이니셔티브(Hydrogen Mobility Initiative) 개소식을 개최했다. 김민수 기계공학부 교수 등 10여 명의 수소모빌리티·수소에너지 연구자들이 모여 출범한 연구체로 수소모빌리티와 수소에너지 인력양성, 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진행한다. 이번 이니셔티브 출범에 이교일·노승탁·한동철·권욱현·임종원 명예교수가 발전재단 기금을 출연하며 지원했다.

"AI가 노동 대체, 자녀에 편하고 연봉 높은 일 권하지 말라"

수요특강

이수형 (국제경제94-98)
모교 국제대학원 교수

소통능력, 자발성 등 키워줘야
"어느 직종이든 수리·통계는 기본"

"손주가 스카이(SKY) 대학, 좋은 과 가면 자녀 교육 끝난 걸까요? 전혀 끝난 게 아닙니다. 반대로 명문대 못 가고, 대기업도 못 갈 것 같아 '도대체 얘를 어떻게 하나' 싶으신 분들도 계시죠? 세상이 바뀌었어요.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듣던 아버지, 어머니와 할아버지, 할머니 귀를 쫑긋 세우게 하는 말이었다. 11월 22일 마포구 본회 장학빌딩에서 열린 수요특강. '일자리 동향과 자녀 교육 전략'을 주제로 이수형 모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강단에 섰다.

경제학자인 이 교수의 무기는 데이터 분석이다. 2021년 세계 최대 인공지능 분석 경진대회 '캐글'의 데이터 분석대회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했다. 많은 사회 경제적 현상을 데이터를 통해 바라본 그가 집중하는 것이 있다. 일자리, 그리고 그와 이어지는 교육이다.

"지난주 한국은행에서 어떤 직업이 AI에 대체될 것인지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런 보고서를 보실 때, 각각의 직업에 대해 집중하시면 안 돼요. 경제학에서 바라볼 때 AI는 인간의 노동을 자동화하는 기술 중 하나예요. AI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원리를 기억하셔야 자녀 지도에서 적시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경제학적 분류에 따르면 인간의 노동은 △육체노동 △정신노동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일 △그때그때 변화하는 일의 네 종류로 분류된다. 과거 기계가 '반복적인 육체노동'을 뺏어갔다면, AI는 '반복적이고 정신적인 업무'를 대체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모님, 조부모님 보시기에 좋은 직업은 업무 강도 대비 페이가 좋은 일이죠. 그것이야말로 회사가 AI로 대체하고 싶은 일입니다. 관습적인 생각으로 자녀를 지도하면 의도와 정반대 결과를 겪으실 수 있어요. AI가 신비해 보이실 테지만, 데이터를 만지는 사람 입장에선 좀 다르게 봐요. 학습할 수 있는, 경험치가 많이 쌓인 일은 기계가 잘할 수 있어요. 거꾸로 말하면 경험치가 잘 쌓이지 않는 과거 정보가 쓸모 없는 경우가 인간이 기계보다 유리한 경우입니다. 클라이언트나 시간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바뀌는 창의적인 업무는 기계가 따라가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자녀교육을 해야 할까. 이 교수는 "자녀교육을 할 때, '인적자본'을 어떻게 높일지를 고민하라"고 말했다. "인적자본은 한 사람이 1시간의 노동을 투입했을 때 업무에서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개념화시킨 용어입니다. 우리 아이를 생산성, 즉 인적자본이 높은 인재로 키워내겠다고 마음먹으시면 편안해집니다. 아이들도

여유로워지고요."

경제학적 분석에 따르면 인적자본에서 '인지적 능력', 즉 공부머리만큼 중요한 것이 커뮤니케이션 능력, 자발성, 인내심, 사회성, 리더십 등의 '비인지적 능력'이다. 가령 자발성은 "주어진 일만 하면 바로 AI로 대체되기 쉬운 시대에 자발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네트워킹하는 능력"이다. 그는 "한국 교육에서 비인지적 능력의 교육은 심각하게 결여됐다"며 아쉬워했다. 한편으로 강조한 것은 '건강'이다. "요즘 젊은이들, 생각보다 멘탈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들께서 잘 봐주셔야 합니다.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닌데 2주 이상 아침에 계속 잘 못 일어난다, 빨간불입니다. 갑자기 살이 빠지거나 찌고, 전화를 잘 안 받는다, 역시 심각한 빨간불이에요." 지난날 좋은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고, 직접 가르치기도 했던 인재들을 보며 갖게 된 생각이다. 그는 "특히 공부 잘 하는 자녀일수록 그동안 문제가 없었기에 '왜 안 되냐'고 다그치기 쉬운데, 큰 실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아이들의 무대를 한국으로 국한할 필요도 없다. 우선 국가마다 유망하고 잘 나가는 분야가 다르다. 이 교수가 강연 초기 여러 나라의 출신 학과, 전공별 연봉 테이블을 보여준 것도 결국 '유망한 전공'이란 시기와 나라에 따라 다르니 시야를 넓히라는 취지에서였다.

이 교수 또한 모교 사회대 수석 졸업 후 행정고시에 합격,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했지만 4년 만에 미국 유학을 떠났다. 스탠퍼드대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고 메릴랜드주립대 교수로 재직했다. 그 과정에서 일자리도,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도 넓어졌다. "미국 기업이 나를 뽑아야 하는 이유를 잘 준비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글로벌 수준의 에티켓과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필요하죠. 특히 영미권에선 질문이 중요해요. 유학 시절 '왜 맨날 저런 걸 질문하지' 했던 친구가 학년이 지나니까 너무 잘하더라고요. 뒤늦게 깨달았는데 그 친구는 자신이 생각한 걸 기준으로 선생님 말씀을 듣고, 재구성하느라 질문을 한 거예요. 전 선생님이 말씀하신 걸 받아적기만 했고요. 어떤 사람이 더 창의적이고 똑똑한 걸까요?"

이제는 한국에서 잘한다고 세계에서 뛰어난 게 아니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교과서에서 빠지는 부분이 많아졌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괜찮아 보이지만, 괜찮지 않다"는 경고다.

마지막으로 "수리력, 통계력은 꼭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샌 야구도 데이터로 하죠. 감독이 '과거 세 번 기준 타율이 떨어지니 더그아웃에 있어라' 할 때, '제가 5주 평균은 좋다.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협상하는 것도 수리력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근세에 글을 읽을 줄 아는 리터러시(literacy)가 자유민의 기본조건이었다면, 지금 시대는 무슨 직종이든 통계적인 리터러시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이날 본회는 참석자 전원에게 이 교수의 책 '대한민국의 학부모님께'를 증정했다. 강연에서 미처 못다한 말들이 가득한 책이다. "교육이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게 도와야 하는데, 한국 교육과 논의는 대학 입시에서 끝나버립니다. 아이들을 상담해봐도 부모님들은 스카이 갔으니 끝이라며 관심이 없으시더군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주의해야 하고, 한편으론 어느 쪽이든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가지셔도 좋아요. 아이들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박수진 기자

규제 피하려고 성장 멈춰서야…기업 뛰게 하는 정책 고민할 때

관악경제인회 조찬포럼

추광호 (계산통계86-90)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

경제 전망 100% 신뢰해선 곤란
건강 가꾸듯 국가경쟁력 키워야

"2001년과 2022년 시가 총액 기준으로 우리나라 상위 기업을 나열해 보면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유명 대기업은 그때도 유명 대기업이었죠. 미국은 다릅니다. S&P 500 시가 총액을 보면 아마존, 메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30~40년 전엔 존재하지도 않았던 기업들이 증권시장의 상위 그룹을 차지하고 있어요. 경제의 역동성 측면에서 기업에 대한 규제 개혁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관악경제인회가 12월 7일 더플라자 호텔 4층에서 조찬포럼을 열었다. 이희범(전자공학67-71) 명예회장, 서병륜(농공69-73) 수석부회장, 조완규(생물48-52) 전 모교 총장 등 동문 7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포럼에서 추광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이 '2024년도 경제 전망'을 주제로 연단에 섰다.

추광호 동문은 모교 졸업 후 미국 포드햄대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한국경제연구원 기획조정실장, 한국기업연합회 사업지원실 기획팀장 등을 겸임하고 있다.

추 동문은 두 장의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다. 한 장은 1900년에, 또 한 장은 1913년에 뉴욕에서 열린 부활절 퍼레이드를 찍은 사진이다. 1900년엔 단 한 대의 자동차만 있고 모두 마차 행렬이지만, 불과 13년 후엔 마차가 한 대뿐이고 모두 자동차로 채워졌다. 20세기 초입의 산업과 그에 따른 사회변화가 이 정도라면, 21세기 4차 산업혁명을 맞아 달라지는 세상이 이보다 느릴 수가 없을 터. 그러나 정부의 규제 정책은 산업계의 변화 발전을 못 따라가는 실정이다.

"기업의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도 급격히 늘어납니다. 2008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엔 자산 규모 2조원대부터 대기업에 해당하는 규제를 가했고, 이후엔 5조원대부터 규제를 했습니다. 2조원 턱밑에 몰려 있던 기업집단이 5조원 턱밑으로 옮겨갔죠. 규제 폭탄을 맞느니 스스로 성장을 멈추겠다는 뜻으로 보여요. 이처럼 국내에선 규제 때문에 기업이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이 뚜렷합니다."

미국과 EU의 코로나19 대응을 비교해 보면, 규제가 성장에 끼치는 영향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다. EU의 GDP는 2012년 12조7035억 달러, 2022년 14조1691억 달러로 11.5% 성장했지만, 미국

의 GDP는 2012년 16조2540억 달러에서 2022년 25조4627억 달러로 56.7% 성장했다. 이렇듯 미국과 EU의 격차가 더 커진 것에 대해 추 동문은 "미국이 경제 구조를 시장 자율에 맡긴 데 비해 EU는 규제 중심으로 정책을 폈던 게 컸다"고 말했다.

"코로나가 터졌을 때 미국은 팬데믹 영향으로 도산하는 기업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사가 망해 직장을 잃은 실업자들에게 실업급여를 줬죠. 실업자들은 실업급여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스스로 직업 훈련을 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반면 유럽은 해고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 망하지 않도록 보조금을 줬습니다. 똑같은 재정 정책인데 방향이 달랐던 거죠."

추 동문은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 능력을 더 발휘하는 쪽에 취직하도록 유도하고, 기업의 새로운 시도를 장려하며,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파견제, 기간제, 비정규직, 노사갈등, 최저임금 등 노동시장을 둘러싼 여러 쟁점들이 결국 유연화로 귀결된다고. 근로자에 대한 검증이 쉽지 않은데 한 번 뽑으면 해고가 어려우니 기업 입장에선 다양한 편법을 동원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면 불가피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정부 정책은 기존에 기득권을 누렸던 사람들의 피해를 보호하는 데 너무 집중돼 있어요. 자동차가 등장했는데 말을 더 빨리 달리게 하려고 채찍을 뾰족하게 가는 마부들의 권익을 마냥 옹호할 수 있습니까. 변화된 산업 구조에서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돕는 편이 바람직하죠.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옮겨가야 합니다."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선, 투자는 좀 나아지고 소비는 좀 더 위축될 거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기업의 투자 여력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등 국내 경제 상황을 부문별로 나눠 설명하면서도 "사실 밝게 보면 밝게 보는 대로, 어둡게 보면 어둡게 보는 대로 근거는 충분하다"며 "매년 경제 전망이 나오고 여러 전문가들이 한마디씩 보태지만, 100% 신뢰하긴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예측할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요? 솔직히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전망해서 다 맞힐 수 있다면 누구나 큰 부자가 됐겠죠(웃음). 개인이 건강하려면 면역력을 키우고 꾸준히 운동하고 잘 먹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하는 것처럼, 국가 경제도 건강하려면 열심히 연구개발해 상품경쟁력을 키우고 유지하는 한편 외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 나가야 합니다. 그때그때 땜질식 전망과 처방으론 어림없어요."

관악경제인회는 이날 참석한 동문 전원에게 추 동문의 추천 도서이자 권태신(경제68-72) 동문의 신간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를 선물했다.

나경태 기자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학문적 지향·자부심으로 모임 활성화"

대학원동창회장
홍준형 (법학75-79 석사82졸 박사84수료)
모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10월 24일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대학원동창회 임시총회에서 홍준형 모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가 제10대 동창회장에 선출됐다. 홍 신임 회장은 모교 국가미래전략원의 전신인 국가전략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데 앞장선 바 있다. 11월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홍준형 회장을 만났다.

"서울대가 연구중심대학을 표방한 지 오래됐습니다. 이는 곧 대학원의 연구 활동을 중시한다는 뜻이죠. 같은 맥락에서 대학원동창회도 전문분야의 역량을 연마한 회원들이 자부심과 책임, 명예와 헌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본연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원동창회는 친목 활동도 남다르다. 골프, 등산 같은 운동 대신 '대학사 포럼'이란 학술 행사를 개최한다. 처음엔 대학의 역사를 주제로 한 포럼이란 뜻으로 이름 붙여졌지만, 지금은 범위가 확장돼 학문 연구 과정에서 겪은 여러 가지 경험이나 애환, 문제의식 등을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 지적 호기심과 학문적 자부심을 중심으로 동문들이 단합하는 것.

"우리 동창회가 서울대의 학문적 정체성을 탐구하고 각 학문 분야가 어떤 과정을 거쳐 발전했는지 기록했습니다. 저는 서울대 대학원의 학풍을 찾아 밝히는 데 동창회 운영의 중점을 둘 생각이에요. 이공계는 몰라도 인문사회 분야에선 학풍이 무척 중요하거든요. 연세대나 고려대의 경우 고유의 학풍을 발굴, 주장하는 데 비해 서울대는 우수성만 얘기했지 고유성을 강조하진 않았습니다. 할 일이 많아요."

홍 회장은 또 이벤트성 행사보다 학문적 역사적 접근을 통해 회원들에게 동창회의 활동을 알릴 계획이다.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동창회인 만큼 서울대 학문 분야의 개척자를 발굴, 홍보하는 것으로 구심점을 삼겠다는 뜻. 각 학문 분야에서 전문성을 함양한 회원들이 모이니 서로 어울리면 자연스럽게 학문의 융복합 활동이 이뤄진다.

"저는 공법학자인데 헌법과 행정법, 환경법도 같이 공부했습니다. 법과 정책이 서로 영향을 많이 미치니 융합적인 접근을 안 할 수가 없죠. 대학원동창회 회원들이 모이면 융합적 시너지가 대단할 겁니다. 각 전문대학원과의 협력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쉽지 않아요. 여태까지 공통의 관심사나 협력의 계기가 없었죠. 졸업생들이 본인 전공 분야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해 대학원동창회원으로서 소속감을 심어주는 것도 녹록지 않고요. 학교 본부에서 동창회 거버넌스 구조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해요. 동문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립니다."

학창시절 추억을 묻자 홍 회장은 군사독재 시절을 떠올렸다. 입학하자마자 휴교령이 떨어졌고, 전투경찰에게 쫓기고, 바로 눈앞에서 최루탄이 터지는 등 갖가지 위험을 겪었다고. 대학원 시절 학교건물에 들어오는 경찰들을 호통 쳐 내쫓았던 은사님을 보며 새삼 지성의 힘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지영(영어교육77-81) 동문과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대학원동창회는 1972년 창립됐으며 회원 수가 15만명에 육박한다. 입회 때 석·박사학위 취득 축하패를 선물하며 '대학사 포럼', '동창회보' 등을 꾸준히 발간하고 있다. 나경태 기자

의대동창회

환자 돌보며 틈틈이 그리고 쓴 작가 의사 37명

함춘문예전 기념특강 단체사진. 박정자 상명대 명예교수와 문정희 시인이 연단에 올랐다.

의과대학동창회(회장 한규섭)가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제10회 함춘문예전을, 10월 16일부터 일주일 간 제21회 함춘미술전을 연이어 개최했다.

함춘회관 2층 가천홀이 아직 공사 중이라 전시공간이 평소에 비해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단골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에 힘입어 두 전시회의 양과 질이 예년 수준을 능가했다.

1952년 졸업 김영택 동문을 비롯해 1960·1970년대 졸업한 원로 동문들이 대거 출품했으며, 재학 중인 예비 동문들의 참여 또한 눈에 띄었다.

올해 함춘문예전에는 동문 및 초대 작가 25명이 시 26편과 수필 8편을 출품했다. 10월 14일에는 박정자(불문61-65) 상명대 명예교수가 '플라톤에서 현대까지의 몸 이야기'를 주제로, 문정희 시인이 '내가 만난 최고의 시'를 주제로 전시 기념특강을 했다.

함춘미술전에는 동문 12명이 회화·판화·사진·우드인그레이빙 등 27점의 작품을 출품했다.

전시회를 찾는 동문 관람객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다. 특히 유화를 출품한 윤혜숙(53-59) 동문은 개회식 때 동문 지인 10명이 찾아와 즉석에서 작품 설명을 하기도 했다.

싱가포르동창회

송년회 때 80여 명 모여 역대 가장 높은 참석률

11월 9일 싱가포르동창회 송년회 참석 동문들이 행사장소를 표시하는 배너 옆에서 포즈를 취했다.

재싱가포르서울대동창회(회장 이정민)가 11월 9일 래플스 플레이스(Raffles Place) 소재 멕시코 음식점에서 '2023년도 총동문회(송년회)'를 열었다.

이정민(서어서문89-94) 회장을 비롯해 동문 80여 명이 참가, 역대 가장 높은 참석률을 기록한 이날 행사는 다양한 게임과 경품 추첨을 비롯해 즐길 거리가 풍성했으며, 동문들의 소중한 추억을 담기 위해 전문 사진사까지 동원했다. 이정민 회장은 "올해 송년 모임을 성대하게 치른 데는 참신한 마케팅, 지속적 참가 독려, 풍성한 경품의 영향이 컸다"며 "싱가포르에 이주한 지 약 20년 됐는데 동창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즐겁다"고 말했다. 싱가포르동창회는 꾸준한 활성화를 위해 최근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했다.

인스타그램 @snualumni_sg

사대동창회

시·가곡·판소리 어우러진 송년회, 100여 동문 참석 성황

11월 23일 열린 사대동창회 송년모임에 이규석 회장, 강준호 학장 등 동문 100여 명이 참석했다.

사범대학동창회(회장 이규석)가 11월 23일 프레지던트호텔 31층 모짤트홀에서 송년 모임을 열었다. 이규석(지구과학교육66-73) 회장, 강준호(체육교육86-90) 학장 등 동문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변주선(영어교육60-64) 정도교육클럽5000 추진위원장이 2024년 정도교육기금으로 1000만원을 기부한 신정숙(화학교육67-71) 동문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서 사대 동문들의 예술적 재능을 엿볼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다. 유자효(불어교육68-75) 한국시인협회장은 송년 시 '가라! 전쟁이여, 질병이여'를 낭송했고, 고윤섭(영어교육65-72) 동문은 판소리 '사철가'를 열창했다.

최정규(물리교육07-14) 동문이 뮤지컬 가곡 '첫사랑'과 뮤지컬 '노트르담의 파리' 중 '대성당들의 시대'를 노래해 선배들 못지않은 가창력을 선보였다. 마사지건, 사과 세트, 김 세트, 핸디 마사지기, 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을 나누면서 끝까지 즐겁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모임이 마무리됐다.

ABKI동창회

밤 9시까지 합동강의 주경야독

11월 13일 ABKI동창회 총동창합동강의에 동문 100여 명이 참석해 밤 9시까지 강의를 들었다.

문헌지식정보최고위과정(ABKI) 동창회(회장 이덕원)가 11월 13일 관정관 양두석홀에서 총동창합동강의를 열었다.

오후 6시부터 7시 20분까지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가 '한국경제의 미래,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오후 7시 40분부터 밤 9시까지 전미영(소비자아동00-04)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연구원이 '트렌드코리아2024'를 주제로 연단에 올랐다.

이날 합동강의는 이덕원 회장을 비롯해 동문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경제 흐름과 트렌드의 변화가 기업가들에게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알려줬다는 점에서 동문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삼익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오페라 하우스
Samick Opera House

2024년 1월 ~ 3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일자	작곡가(연주자)	제목(내용)	장르 | 런닝 타임
1/3	시무식	12시 프라움 음악박물관콘서트	야외 콘서트 (덕소 소재)
1/10	비엔나 필하모니카	Neujahrskonzert 신년음악회	콘서트 118분
1/17	몬테베르디	율리시스의 귀환	오페라 165분
1/24	모차르트	마술피리	오페라 150분
1/31	벨리니	노르마	오페라 154분
2/7	로시니	세비야의 이발사	오페라 155분
2/14	최홍식 교수	11시 목소리 건강관리	특강 120분
2/21	도니제티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오페라 137분
2/28	베르디	아틸라	오페라 118분
3/6	푸치니	토스카	오페라 123분
3/13	케루비니	메데아	오페라 140분
3/20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엘렉트라	오페라 108분
3/27	이강훈 교수	11시 건강한 집(방과 마당)	특강 120분

* 무료 상영, 다과비 별도 (분기 10만 원, 월 4만 원, 또는 회당 14,000원)
* 사전 예약 문의 : 010-5290-0273 박용대 관장
***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 · 시간 · 장소 변경 가능
삼익문화재단 삼익아트홀 (7호선 학동역 6번출구 50m 삼익악기빌딩 3층)

상대동창회

골프대회에 1958~1996학번 148명 참가

10월 31일 한양CC에서 열린 상대동창회 추계 골프대회에 참가 동문들이 기념사진을 찍었다

상과대학동창회(회장 조문순)가 10월 31일 한양CC에서 추계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5월 31일 춘계 대회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이날 골프대회에 58학번부터 96학번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동문 148명이 참가했다. 특히 73학번 동문이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82·87학번이 각각 14명, 84·96학번이 각각 12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날 골프대회에서 손재환(경영69-73) 동문이 75타를 쳐 메달리스트에, 김동주(경제80-84) 동문이 신페리오 방식으로 우승에 올랐다. 230m를 친 조성문(경영96-03) 동문이 롱기스트상을, 80cm의 최영석(경영89-93) 동문이 니어리스트상을 받았다. 참가자 전원에게 골프백 네임텍, 콩카페 액상커피, SK쉴더스 KLPGA 대회 관람권 등을 증정했다.

골프회 총무인 한준수(경영82-86) 동문은 "행사 등록할 때와 만찬 후 나가실 때, 동문 선후배님들 얼굴이 너무나도 달라 행사 준비를 한 사람으로서 보람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모임을 계속 확대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상대동창회 골프대회는 2024년 5월 29일과 10월 30일 두 차례 예정돼 있다. 나경태 기자

농생대동창회

이용남·박의호 동문, 상록문학상 최우수상

11월 13일 제6회 상록문학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를 비롯한 참석 동문들이 기념사진을 찍었다.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회장 서병륜)가 11월 13일 관악캠퍼스 200동 대회의실에서 제6회 상록문학상 시상식을 열었다. 이날 시상식에서 이용남(축산61-65) 동문이 '길 위에서 길을 묻는다!'로 수필 부문 최우수상을, 박의호(농학72-77) 동문이 '마네킹'으로 시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수필 부문 심사를 맡은 이순형(농공70-74 한국문인협회 회원) 심사위원장은 "예년에 비해 응모한 작품은 적으나 수준이 높았으며 아마추어 작가인데도 불구하고 몇 작품은 기성 수필가의 작품 못지않아 당장 등단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라고 평했다.

시 부문 심사를 맡은 손해일(잠사67-75 한국현대시인협회 이사장) 심사위원장은 "수상자들이 상록문학상에서 나아가 노벨문학상까지 수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작품활동을 하길 바란다"고 하면서 시 쓰기의 비법은 시의 본령인 '응축'과 '비유법'에 있다고 말했다.

'상록문학상'은 동창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2018년 모교와 동창회 주관으로 제정됐다.

샌드페블즈 50주년 기념 앨범 발매

농생대 밴드 샌드페블즈가 결성 50주년 기념앨범 'Golden Jubilee(골든 주빌리·사진)'를 발매하고 12월 6일 온라인 음원사이트에 공개했다. 'Golden Jubilee'는 50년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번 앨범은 1970년 결성한 1대부터 현재 직전기수인 50대까지 역대 멤버들이 만든 프로젝트 밴드의 자작곡으로 채워졌다. 앨범에는 '나 어떡해'를 만든 5대 김창훈 동문이 작사·작곡한 '나 샌드페블즈야'를 비롯해 미국 거주 동문들이 만들고 래퍼 박재범이 피처링한 '디아스포라', 샌드페블즈 멤버 사이에 구전돼 오던 '하조대연가' 등 11개 곡을 수록했다. 마지막 트랙에는 대학가요제 1회 대상곡 '나 어떡해'를 재녹음해 실었다. 각계각층에 있는 동문들의 자발적인 후원과 10여 년 전부터 활동 중인 '샌드페블즈 동문회'의 연회비 수익으로 제작비를 마련했다. 제작 기간은 6개월.

12월 9일엔 마포구 벨로주에서 코로나19로 미뤄왔던 50주년 기념 공연을 열고 신곡들을 선보였다. 재학생인 50대·51대도 참여했다. 허진회(원예91-97 농생대 교수) 샌드페블즈 동문회장은 "앨범과 공연 준비로 힘들었지만 곡 하나하나 의미 깊고 퀄리티도 예상보다 뛰어나게 나왔다. 무엇보다 선후배가 같이 모여 의미있는 공연이 됐다"고 말했다.

제26회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관악대상 후보 추천 공고

총동창회는 매년 모교와 총동창회의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아,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여 명예를 드높인 동문 또는 단체에, 「관악대상」을 수여해 오고 있습니다. 제26회 관악대상 후보자(단체)를 다음과 같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후보 추천 대상

● 모교와 총동창회 발전을 위해 유·무형적 헌신과 봉사로 기여한 분 또는 단체

● 인류사회와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훌륭한 업적을 쌓아, 모교와 총동창회의 긍지와 명예를 드높인 분 또는 단체

2. 선정 인원 : 약간명

3. 후보 추천

● **추천방법 :** 서울대인 누구나 추천 가능하며, 추천 서식에 맞추어, 후보의 공적 및 주요활동 사항을 작성하여 총동창회 사무처로 제출

* 추천 서식은 홈페이지 www.snua.or.kr 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추천기한 :** 2024년 1월 31일(수)까지

3. 수상자 선정 및 시상

● 수상자는 2024년 2월 중 관악대상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 2024년 3월 29일(금) 정기총회에서 시상합니다.

4. 문의 및 접수처

●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관악대상 담당자(02-879-8208)

(08826)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940동 415호, (신림동, 서울대연구공원 본관)

대표전화 : 02-702-2233,

팩스 : 02-703-0755,

이메일 : member@snua.or.kr

※추천서식 및 역대 수상자 명단은 홈페이지 www.snua.or.kr 공지사항 참고

2023. 12.

서울대학교총동창회장

호주동창회

윌슨공원으로 봄나들이 87명이 함께 부른 '아리랑'

재호주서울대동창회(회장 구본행)가 10월 21일 블루마운틴 자락의 윌슨 공원으로 봄나들이를 다녀왔다. 호주는 지구의 남반구에 있어 계절이 한국과 정반대다. 이날 나들이에 시드니 거주 동문과 가족 87명이 참가했다.

구본행(수학교육69-76) 회장이 "오늘이야말로 10월의 어느 멋진 날이다. 이렇게 많은 동문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하자 좌중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어 구 회장은 이날 행사 경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한 조기덕(토목공학56-60) 동문과 부인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10월 21일 블루마운틴 윌슨 공원에서 열린 호주동창회 봄나들이에 동문과 가족 87명이 참가했다.

호주동창회는 이날 처음 모임에 참가한 동문과 가족들을 일일이 소개하고, 80~90년대 학번 젊은 동문들을 좌중 앞으로 불러 인사시키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동문들은 '아리랑', '과수원길', '고향의 봄' 등을 다 함께 부르며 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나눴다.

태국동창회

송년회서 재활성화 다짐

재태국서울대동창회(회장 오세웅)가 11월 30일 방콕 시내의 이탈리안 식당에서 송년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 전상민(불문63-67)·성낙제(경제86-93) 동문 등 12명이 참석했다.

성낙제 동문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대면 모임이 어려워지면서 예전만큼 많은 동문들이 함께 하진 못해 아쉬었다"고 하면서 "이날 송년 모임이 동창회 활성화의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태국동창회는 현지 동문들의 골프모임인 '베리타스 클럽'을 모태로 2015년 결성됐다.

태국동창회 송년회에 현지 동문 12명이 참석했다.

미대동창회

동문 소장 작품전 '마이컬렉션' 개최

본회와 미술대학동창회(회장 권영걸)가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마포구 SNU 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에서 동문 소장 작품전 '마이컬렉션'을 개최했다.

1946년 이후 제작된 회화, 조각, 공예 작품 120여 점이 출품된 이번 전시회는 모교 동문 및 단체가 소장한 작품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소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동시에, 수익금은 본회 장학기금 및 모교 미대 창작지원금으로 쓰여 후배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가 됐다. 특히 본회 소장 작품들은 구입 시 기부금 영수증 처리도 가능했다.

문의: 02-877-8065

광고 협찬 부탁드립니다

총동창신문 광고 대행 외주 업체와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동창회 자체적으로 광고를 수주합니다. '서울대총동창신문'은 모교 출신 중견 언론인 25명의 자문을 받아, 매월 5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광고 협찬 안내서를 참고하셔서, 기업 홍보 및 상품 광고를 위해 많은 이용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김남주 편집장
(02-886-2219, news@snua.or.kr)

구분	규격	광고료
전면	299mm×432mm	600만원 (맨 뒷면)
		500만원 (내지)
절반	299mm×216mm	300만원
1/4면	299mm×125mm (가로형)	200만원
	175mm×210mm (세로형)	

"Golf 인생"

시 인 이전구

1. 치는법을배움
골프를 치려거든 치는 법을 배우시게
팔과 어깨 목에서 힘을 쭈욱 뽑으시고
백스윙은 천천히 공에서 눈을 떼지 말고
고개를 들지 말고 외아들에 정성 쏟 듯
하얀공에 정성들여 다운스윙도 천천히
스슬쩍 찰싹하고 내려치는 느낌이라!

2. 예의를지킴
골프를 즐기려면 예법부터 배우시게
이 세상에 신사놀이 이만한 것 또 있을까?
말조심, 서는 자리, 앞서 가고, 뒤서는 것
내 파트너 잘 칠 때엔 칭찬일랑 잊지 말고
내 파트너 실수할 땐 그 실수가 내 것인 듯
내 친구만 이웃인가 건너 동에도 이웃일세
호떡집에 불 안 났네 말 소리는 조용조용
실례가 많아지면 친구들이 멀어지네
나를 슬프게 하는 것 중 이것 또한 으뜸이라.
잘못된 모든 일은 그 모두가 내 탓이며
라이벌은 누구인가 바로 "나" 자신일세

3. 실패를극복
골프를 치다 보면 청개구리 공이란 놈
곰배팔이 팽이 치듯 좌측으로 우측으로
오줌 맞은 두꺼비가 웅덩이로 뛰어들 듯
돌팔매에 놀란 토끼 숲속으로 도망가듯
골프인생 우리인생 실수투성이 아니런가?
관운장도 실수하여 조조에게 잡혔듯이
이것들이 그 모두가 병가상사 아니겠소
낙담일랑 하지 말고 초연함을 잃지말게
이번 실수 교훈 삼아 새 성공을 기대하소

4. 과욕은금물
핸디를 줄이려면 서두르지 마시게나
열여덟개 기회 있고 일흔두번 기대있네
조금 더 내보낼까 팔과 목에 힘을 주니
공이란 놈 잘 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누나
한 번 실수 두 번 실수 누구라고 아니하나
전 홀에서 잃은 것을 지금 당장 찾으려고
욕심을 내어서는 공이 알고 도망가네
항우장사 실패하여 유방에게 잡혔듯이
동탁이가 실패하여 여포에게 죽었듯이
과욕으로 인한 실패 실수 아닌 업보라네

5. 운영의묘
골프를 잘 치려면 나온 거리 남은 거리
수학문제 풀어가듯 계산부터 하신 후에
풀 길이가 길었는가? 장애물은 어디 있나
그린 위에 팔락이는 핀을 슬쩍 노려본 후
분수에 맞는 채를 꺼내 깊은 호흡 한 번 쉬고
마음부터 비운 후에 투-욱하고 내려치면
공이란 놈 날아가서 그린 위에 꽂힌다네

6. 정직함
골프를 즐기려면 이세상에 무엇보다
"정직" 보다 중요한 것 그 어디에 있을소냐?
풀숲에 숨은 공을 발로 차서 꺼내 놀까?
아무도 안 보니까 공을 한 개 놓고 칠까?
모든 유혹 떨쳐버려 있는 그대로 올려보세
자기 것을 계산하고 내가 나를 감독하고
백에라도 단 한 번쯤 자기 양심 속일 때에
공 이란 놈 먼저 알고 숲 속으로 도망가네

7. 운
골프를 잘 치려면 운도 또한 기다리세
모사는 재인이요 성사는 재천이라
그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과욕은 극복하고 마음만 차분하면
팔과 다리 허리 머리 오장육부 조화이뤄
기적 같은 동작들이 이따금씩 나타나서
날아가는 새도 잡고 홀인원은 못할소냐?

8. 건강
이렇게 하여 열여덟홀 한 바퀴를 돌고 나면
몸에서는 싱그러운 풀냄새가 향기롭고
푸른 하늘 닮은 마음 한량없이 상쾌하네
엔돌핀은 축적되고 백혈구도 많아지고
혈액순환 순조로워 혈압도 뚝 떨어져
허리뼈가 시큰시큰 이따금씩 아픈증세
목욕 한 번 하고 난 후 씻은 듯이 없어졌네

9. 가정
하루종일 나 혼자서 좋은 시간 가진 동안
사랑하는 우리 아내 골프 과부 만들었네
당신도 골프 배워 우리 함께 건강하여
검은 머리 파뿌리 되어 한백년을 살아보세
미안한 맘 금치 못해 혼잣말로 중얼중얼
운전일랑 조심하고 고속으로 가지마소
천사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우리새끼
저녁 밥상 차려놓고 아빠 오기 기다리네

NEW YORK GOLF CENTER
NYGOLFCENTER.COM
뉴욕골프센터
미동부지역 최대 골프전문 백화점 그룹
131W. 35TH. ST.NEW YORK, N.Y. 10001
Tel (212)564-2255 / www.nygolfcenter.com

회 장 이전구(64년 농대졸)
·뉴욕골프센터 그룹 회장
·전 미주한인상공회의소 회장
·서울대 미주동창회 14대 회장
·전 미동부문인협회 회장
·시인(한글문학에 등단, 1998)

동문 서비스1 : 제휴 호텔·리조트·펜션 등

동문과 동문가족(배우자와 이들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이 제휴 호텔 리조트 펜션 등 이용 시, 최대 50%까지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평생 회비 또는 당해 연도 연회비를 납부하신 동문 대상, 회원우대증과 동반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지참 필수

한국교직원공제회·The-K호텔 앤 리조트

● 일반이용시 (단위 : %)

구 분	The-K호텔 앤 리조트				비 고
	서 울	경 주	지리산	설악산	
객 실	40	주중(50) / 주말(40)	50	50	성·비수기 구분 없음
식음료	10	-	-	-	식사 및 음료 할인
휘트니스	50	5000원 할인	30	-	서울호텔은 투숙시 할인
세미나	30	-	-	-	회의장 렌탈료 할인

구 분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	비 고
객 실	주중(60) / 주말·성수기(50)	
식음료	10	식사 및 음료 할인

※ 정규요금 기준으로 할인 적용 (중복 할인 불가)

● 휴스테이(롱스테이) 이용 시 (단위 : 원/일)

구 분	The-K호텔 앤 리조트			The-K 서드에이지
	설악(20평)	지리산(20평)	경주(일반실)	
3~7일	55000~90000	90000~130000	95000~120000	30000
8~30일	50000~85000	50000~90000	80000	

※ 호텔 및 롱스테이 이용 관련 유의사항
· 평형별, 요일별, 숙박일자 및 예약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비·성수기 일자 및 요금 매년 변동
· 사전예약 후 이용 가능하며, 이용 시 대상기관 회원 및 임·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회원우대증 등) 제시 필수

※ 예약 및 문의 : 서울 02-571-8100, 경주 054-745-8100, 지리산 061-783-8100, 설악 033-639-8100, 제주 064-729-8100
- 서드에이지 : 입소 시 보증금의 5% 할인 (예약:055-530-8100)
- 예다함상조 : 가입 시 최종 8회분 납입 면제. 단, 전화 상담 가입에 한함 (예약:1566-6644)

앰배서더 호텔 그룹

구 분	객실	식음료	연회	예약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	10%	10%	5%	02-567-1101
앰배서더 서울 풀만	10%	10%	·	02-2275-1101
경원재 앰배서더 인천	10% 주중(일-목)	투숙시 10% Room svc 제외	미팅룸 대여 15%	032-729-1101
이비스스타일앰배서더강남	10%	10%	10%	02-3011-8888
이비스스타일앰배서더명동	10%	10%	10%	02-6020-8888
이비스 앰배서더 명동	10%	10%	10%	02-6361-8888
이비스 앰배서더 인사동	10%	-	10% 대여에 한함	02-6730-1101

※ 상기 요금은 정규요금을 기준으로 한 할인율이며, 중복 할인은 불가함(객실은 홈페이지에서 code[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입력 후 예약 가능, 식음 및 연회는 전화 사전예약 필수, 총동창회 회원우대증 제시 필수)
※ 호텔 내 직영이 아닌 임대 업장 및 외부 서비스의 경우 할인 대상에서 제외

라마다 군산 호텔

라마다 군산 호텔

(단위 : 원)

객실타입	정상요금	주중(일~목)	주말(금·토)	연휴/성수기
스탠다드 더블/트윈	220000	90000	110000	125000
스탠다드 패밀리트윈/디럭스더블	242000	95000	120000	135000
디럭스패밀리트윈/온돌	264000	105000	130000	145000
디럭스 스위트더블/패밀리 스위트	450000	180000	220000	250000
연휴/성수기 기간안내	2023년: 1/20~1/23, 4/28~5/1, 5/4~5/7, 6/2~6/5, 7/21~8/19, 9/27~10/2, 10/6~10/8, 12/22~12/24, 12/29~2024년 1/1			

※ 세금, 봉사료 포함가, 정규요금 기준으로 할인 적용 및 중복 할인 불가, 총동창회 회원우대증 제시 필수
※ 예약 및 문의 : 063-441-8000

하늘계곡연수펜션

(단위 : %)

구 분	객실	식음료	세미나	비 고
총동창회 할인율	40	10	30	- 객 실 : 성·비수기 구분 없음 - 세미나 : 회의장 렌탈료 할인

※ 정규요금 기준으로 할인 적용 및 중복 할인 불가, 총동창회 회원우대증 제시 필수
※ 예약 및 문의 : 043-653-2013, www.skyp.co.kr

고급 식당 할인 혜택

● **필경재 (한정식 전문점)** 총동창회 회원우대증 제시 시 이용금액의 10% 할인
※ 예약 및 문의 : 02-445-2115 (서울 강남구 수서동 광평로 205)
● **슈타인도르프 (수제맥주 전문점)** 총동창회 회원우대증 제시 시 이용금액의 10% 할인
※ 예약 및 문의 : 02-422-9000 (서울 송파구 오금로15길 11)

결혼정보업체 듀오 10% 할인

● 동문이 가입할 시 10%, 동문 가족은 5% 할인 적용
※ 문의 : 1577-8333

동문 서비스2 : 건강검진 협약병원

동문과 동문가족(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포함)은 협약병원에서 건강검진 시 최대 50%까지 우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생 회비 또는 당해 연도 연회비를 납부하신 동문 대상, 회원우대증과 동반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지참 필수

10~30% 감면

서울대학교병원	02-2072-3333	건강검진 10% 우대, 배우자의 부모 제외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02-2112-5500	건강검진 10% 우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1588-3369(내선2번)	건강검진 10% 우대, 배우자의 부모 제외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02-870-3333(내선2번)	건강검진 10% 우대
국립암센터	031-920-1212	암검진 10% 우대
강남세브란스병원	1899-7588 ydmchc@yuhs.ac	우대혜택 병원에 문의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1588-8668(내선1번)	우대혜택 병원에 문의
고려대학교구로병원	1577-9966(내선2번)	우대혜택 병원에 문의, 배우자의 부모 제외
고려대학교안암병원	02-920-5106, 5491, 6677	우대혜택 병원에 문의, 배우자의 부모 제외
대림성모병원	02-829-9357, 9359, 9317	건강검진 및 비급여 진료 20% 우대
한국원자력의학원	02-970-1791~3	우대혜택 병원에 문의, 장례식장 15% 우대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031-910-7027~8(검진) 031-910-7000(비급여)	건강검진 10% (1~2월 30%) 우대 비급여진료 10% (20만원 한도)
명지병원 제천 명지병원 인천사랑병원	031-810-6383 043-640-8450/8451 032-457-2800	건강검진 20~30% 우대 비급여진료 10% 우대 (재료대 및 약제비 제외)
중앙대학교병원	6299-2114	기본건강검진 20%, 치과 비급여진료 10%, 장례식장 안치료 및 빈소 10%(상조회 가입한 경우 5%)
CM병원	02-2635-8275 070-4698-7817	종합검진비 10%(1~3월 20%), 비급여진료 10%
아주대학교병원	031-219-4000	종합검진비 10%(1~3월 20%)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070-4665-9137	종합검진비 10%
화홍병원	031-8021-6947~8(검진) 031-8021-6958(비급여)	종합검진비 20% 비급여진료 10%

최대 50% 감면 (일반검진 25만원 / 종합검진 35만원 / 정밀검진 50만원)

구로성심병원	02-2067-1500		
메디플라워 헬스케어	02-3475-7100(내선1번)		
차움건진센터	삼성	1800-7750(내선1번)	35·50만원
	청담차움(프리미엄)	02-3015-5001	80·100·150·200만원
한국의학연구소(KMI)	1599-7070	본원(광화문), 여의도, 강남, 수원, 대구, 부산, 광주	
한신메디피아	02-596-4565(내선2번), 3476-7760		

동문 서비스3 : 경조 서비스

평생 회비 또는 당해 연회비를 납부하신 동문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 본인 부담)

화환·조화, 경하기·근조기

구 분	근조기	경하기	조화·화환	영정바구니
서울	25000원	30000원	80000원 (전 지역 동일)	100000원 2개 세트 (전 지역 동일)
서울근교	30000원	38000원		
수도권	38000원	42000원		
경기외곽	42000원	45000원		
지방	48000원	48000원		
제주도	80000원	80000원		

● 신 청 _ 경조 서비스 신청
신청 및 문의 : 전화 02-702-2233

● 입 금_신청 후 비용 계좌로 입금
계좌번호는 신청 후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 배 송_입금이 확인되면 3~4시간 안 배달
도서지역과 교통불편지역은 요금 및 소요시간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회원우대증을 제시하시면 우대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동창회 평생회비 또는 당해 연회비를 납부하신 동문님은 회원우대증을 모바일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휴사 이용 시 본 우대증을 제시하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모바일 회원 우대증 발급방법
오른쪽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발급 화면으로 연결
또는 홈페이지 www.snua.or.kr 첫 화면 하단 「회원우대증」 배너 클릭 (회원가입 필요)
*스마트폰에서 접속하시면 편리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거나 홈페이지 가입을 원치 않으시면 사무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우대증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드립니다.
*문의: 총동창회 사무처 대표전화 02-702-2233 문자전용 1877-2039

【회원우대증 바로가기】

Mall SNUA 서울대 달력 입점

2024년도 서울대 달력이 Mall SNUA에 입점했다. 벽걸이형과 탁상형, 일반과 고급 등 네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일반 달력엔 캠퍼스 곳곳의 풍경 사진이, 고급 달력엔 세시풍속을 담은 이미지가 들어갔다. 탁상형은 일반과 고급 모두 7000원이고, 벽걸이형은 일반 달력이 1만2000원, 고급 달력이 3만5000원이다.

군부대에 납품될 만큼 품질관리가 우수한 '뉴 충성 핫팩'도 입점했다. 크기별로는 물론 깔창형, 포켓형, 부착형, 발난로형 등 다양한 형태로 출시됐으며, 20시간 동안 최고 70도까지 따끈해 겨울철 야외활동에 요긴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겨울 입점해 많은 동문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던 '퓨어 캐시미어 머플러'가 다시 출시돼 Mall SNUA만의 특별한 가격으로 판매 중이며, 다림질이 필요 없는 셔츠로 오랫동안 베스트셀러 상품을 점했던 어반트 셔츠도 새로운 상품을 내놨다.

삼성과 LG의 생활가전제품은 폐쇄몰인 Mall SNUA의 장점을 살려 최저가로 입점해 꾸준한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4000여 상품이 입점한 Mall SNUA는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포괄하는 셈이다.

2024년 상반기 행사 안내

행사 문의 : 02-702-2233

수요특강
일시 : 2월 28일 (수) 오전 7시 30분
장소 : SNU 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 (공덕역 8번 출구)
강연자 및 주제 : 미정
참가비 : 2만 원 (김밥·생수 및 도서 제공)

조찬포럼
일시 : 3월 14일 (목) 오전 7시 30분
장소 : 플라자호텔 LL층 그랜드볼룸 (시청 앞)
강연자 및 주제 : 미정
참가비 : 5만 원 (조찬 및 도서 제공)

정기총회 및 관악대상시상식
일시 : 3월 29일 (금) 오후 6시
장소 :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소공동)
참석인원 : 450명 예상

국토문화기행
일시 : 4월 12일 (금) 오전 9시
집합장소 : 2·9호선 종합운동장역 7번 출구
답사지 : 철원·연천 용암대지의 DMZ
안내 및 해설 : 이민부 한국교원대 명예교수
참가비 : 5만 원

수요특강
일시 : 4월 24일 (수) 오전 7시 30분
장소 : SNU 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 (공덕역 8번 출구)
강연자 및 주제 : 미정
참가비 : 2만 원 (김밥·생수 및 도서 제공)

나눔 골프대회
일시 : 5월 13일 (월) (예정)
장소 및 참가비 : 미정

동문 나눔 가족음악회
일시 및 장소 : 5월 23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잠실 롯데콘서트홀
지휘 : 금난새 음악감독

동문 등산대회
일시 : 6월 5일 (수) 오전 10시
산행지 : 미정
참가비 : 2만 원 (오찬 제공)

조찬포럼
일시 : 6월 13일 (목) 오전 7시 30분
장소 : 플라자호텔 LL층 그랜드볼룸 (시청 앞)
강연자 및 주제 : 미정
참가비 : 5만 원 (조찬 및 도서 제공)

"한국만 잠잠했던 빈대, 반드시 문제될 거라 생각했다"

김주현 (응용생물화학05-09)
모교 의대 열대의학교실 조교수

모기·빈대·이 등 흡혈곤충 연구
"살충제 저항성 날로 높아져"

"그게 아직도 우리나라에 있어?"

'무엇을 연구하냐'는 말에 김주현 모교 의대 열대의학교실 교수가 답하면 십중팔구는 고개를 갸웃했다. "모기는 그렇구나 하는데, 빈대나 이를 연구한다면 뭐하러 연구하느냐고 했어요." 하지만 사라진 줄 알았던 그들도, 밀도가 낮을 뿐 언제나 존재했다. 특히 김 동문이 걱정한 건 빈대였다. "전 세계에서 문제인데 한국만 잠잠한 게 이상했죠. 언젠가 반드시 문제될 거라 생각했어요."

그 예상대로 한국은 지금 빈대 몸살을 앓는 중이다. 김 동문이 처음 살아 있는 빈대를 연구한 건 14년 전인데, 요즘에야 빈대 얘기를 할 기회가 생겼다. 작년 말 반날개빈대를 70여 년 만에 국내에서 재발견했고, 최근 살충제 저항성 빈대에 효과적인 대체 약제를 발굴해 화제가 됐다. 그러나 인터뷰에 응하며 그는 "'빈대 전문가'보다 더 넓은 의미의 흡혈곤충 연구자로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했다. 12월 1일 연건캠퍼스 연구실에서 만났다.

"갑각류, 곤충류, 거미류 등을 포괄하는 절지동물 중에서도 제가 관심 있는 건 사람의 피를 빨아 기생하거나 질병을 옮기는 종류예요. 모기, 이, 진드기, 빈대 등이 있죠. 이들의 생리적 특성은 무엇인지, 병원체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사람에게 병을 옮기는지 메커니즘을 살펴보고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들었다. "말라리아를 옮기려면 열원충이 모기 장을 뚫고 나와서 침샘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특정 종류의 모기 안에서만 그게 가능해요. 같은 이라도 면역력이 강한 머릿니는 박테리아를 죽이지만, 몸니는 죽이지 못해 병을 옮기죠. 다같이 흡혈을 해도 특정 절지동물과 소화기관 내의 환경, 병원체의 전략이 맞아떨어져 이 곤충은 병을 옮기고, 저 곤충은 못 옮기는 것, 작은 몸에서 그런 복합적인 일이 일어난단 게 너무 충격적이고 신비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빈대를 연구한 건 다른 흡혈곤충에 없는 특이한 단백질에 관심을 가져서였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국내에서 가끔 발견되는 빈대들이 심상찮았다. "미국 학회에선 10여 년 전부터 빈대 분과를 따로 두고 살충제 저항성 문제를 다뤘어요. 그런데 국내에서도 가끔 빈대가 잡히면 살충제 저항성이 보여 어쩌나 싶었죠." 흔히 '살충제 내성'이라고 하지만 이는 틀린 말. 그 대에서 끝나는 내성과 달리 저항성은 유전적 변이를 뜻한다. 그나마 빈대는 병을 옮기지 않지만, 병을 옮기는데 약에도 죽지 않는다는 것은 또다른 문제다. 그가 저항성 연구에도 비중을 두는 이유다.

"말라리아, 일본뇌염 같은 국내 3급 법정감염병 중 절반 이상이 절지동물이 매개체인 걸 아시나요? 해외에서 유입되는 절지동물 매개 감염병도 문제입니다. 지금은 걸려온 사람만 치료하면 되지만, 만약 그 감염병을 옮기는 매개체가 같이 들어와서 국내에 정착하고 감염고리가 완성되면 큰일이거든요."

매개체 연구를 하다 보면 24절기가 다르게 체감된다. "봄이면 남쪽에서 참진드기 소식이 들려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옮기는 녀석들이죠. 여름은 저희 성수기예요. 더워지면 슬슬 강원, 경기 북부에 말라리아 모기가 나오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채집하러 가요. 많을 땐 한 번에 1000여 마리씩 산 채로 고이 가져와 해부하고, 키우기도 해요. 가을엔 쥐 잡아야죠. 쯔쯔가무시를 옮기는 진드기가 쥐에 붙어 살거든요." 바쁠 땐 주말도 없다며 즐거워만 보이는 모습이 영락없는 '곤충 덕후'였다. 연구실에도 생전 처음 보는 곤충 모양 봉제인형과 모기 그림 티셔츠, 컵 등 곤충 굿즈가 즐비했다. 해외 학회 갈 때마다 사 모았다는데, 빈대는 왜 없는지 물으니 "너무 안 닮았더라"고 했다.

실로 그는 흡혈곤충에게 "자식 같은 느낌이 든다"고 했다. 말 그대로 '먹이고 재우며' 직접 키웠기 때문이다. "대학원 때 머릿니와 몸니로 박사논문을 쓰면서 흡혈곤충 인공 사육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빈대는 굶어도 세 달은 버티지만, 이는 사람 피만, 그것도 두 시간마다 먹어요. 연구용 혈액이 늘 있지도 않죠. 당장 먹이지 않으면 다 죽게 생겼는데 손 빌릴 데는 없고…. 제 다리에 붙였죠." 누구든 머릿니나 빈대는 기꺼이 내주기보다 감추려고 했다. 문전박대도 여러 번 당했다. 한 마리가 아쉽고 귀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물론 저도 가렵고 힘들죠. 사람마다 다르지만, 제 경우 빈대는 4마리 물린 게 이 200마리와 맞먹어요. 그래도 제 피를 먹으면 어찌나 행복해 보이는지, 윤기도 나고요(웃음). 사람을 흡혈하면서 사람과 함께 진화한 것들이잖아요. 좋든 싫든 우리와 가장 가깝다는 점이 특별하게 느껴지곤 해요." 공들인 인공 사육 시스템이 모교에 잘 정착한 것도 보람이다.

국내 기생충학과 곤충학에서 흡혈곤충은 마이너 분야다. 생리학적 연구는 더 드물다. 모교 박사 졸업 후 미국 매사추세츠대에서 박사후 연구원을 지내고, 지난해 3월 모교에 부임하기까지 마음고생이 적지 않았다. "(이력서를) 정말 많이 쓰고, 많이 떨어졌어요. 열대의학교실에서 연구하는 기생충에 절지동물도 속해요. 처음으로 절지동물 전공을 뽑으셨고, 제가 운이 좋았죠. 내 전공으로 갈 곳이 있을까 걱정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모교에 오니까 그늘에서 자라다 양지바른 곳에 심겨진 묘목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흡혈곤충으로 인한 감염병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며 심도 있는 매개체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기후는 날로 절지동물의 번식에 유리하게 변해가고, 병을 옮기기까지 잠복기는 짧아진다. 약제 저항성은 커지는데 늘어난 해외 교류로 국가 간 전파까지 쉬워지니 총체적 난국이다. "잡아 죽이기만 할 게 아니라 왜 약이 듣지 않으며, 어떻게 병을 옮기는지 이해하고 지금부터 관리해야죠. 빈대처럼 문제가 됐을 땐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내에 얼마 없는 '흡혈곤충 전문가'란 정체성이 너무 소중하고,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다. "내가 하는 연구가 결국은 인류 보건 향상과 복지로 귀결돼야 한단 생각이 있어요. 사람마다 세상에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텐데, 제겐 흡혈곤충을 잘 연구해서 사람들이 덜 고통받게 하는 게 애정이고 삶의 비전이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제 연구로 어떻게 사람과 사회에 기여할지 목표의식을 소중히 간직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이제 시작인 만큼 즐겁게 꿈을 펼쳐보고 싶습니다." 박수진 기자

"장애인은 돌봐줘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동료"

유수진 (윤리교육18입)
재학생

고교생 때부터 꾸준히 봉사활동
샤눔 리더스클럽 블랙레벨 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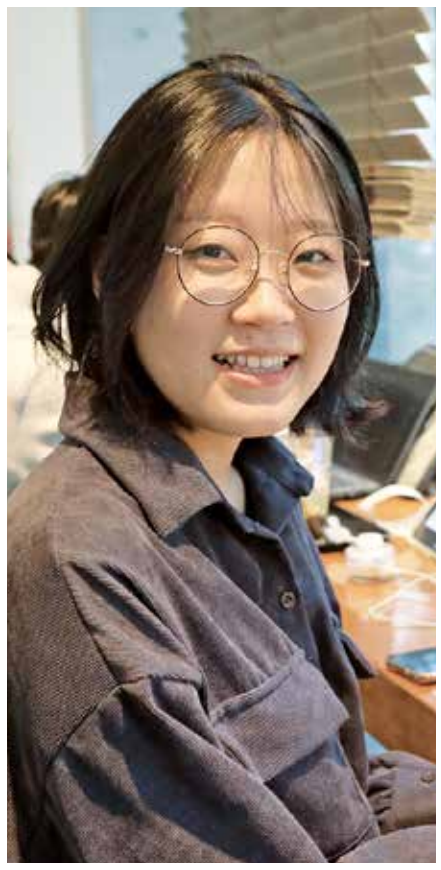
"봉사활동을 계속하면서 거듭 느끼게 되는 것 중 하나가 같이 살아간다는 느낌이에요. 저 혼자 잘 먹고 잘살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삶은 큰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학과 특성일 수도 있는데,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에 빠질 때가 많았죠. 그럴 때마다 다른 사람과 같이 산다는 평범한 깨달음이 되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봉사활동은 제게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월 27일 열린 '2023 샤눔리더스클럽 시상식'에서 윤리교육과 18학번 유수진 학생이 새롭게 '블랙레벨'로 승급했다. 샤눔리더스클럽은 모교 글로벌사회공헌단이 2019년부터 운영하는 사회공헌 멤버십 제도로, 단계별 인증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독려하는 사업이다. △SNU공헌단 △학생사회공헌단 △샤눔다문화공헌단 등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해 실버레벨, 골드레벨을 거쳐 누적 포인트 1000점 이상을 받으면 블랙레벨이 된다. 11월 28일 사범대 파스쿠치에서 유수진 학생을 만났다.

"고등학교 때 사범대 진학을 마음먹으면서 교육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저의 학창시절을 돌이켜 보면, 도와주는 건 쉬웠는데 도와달라고 하는 건 잘못 했거든요. 그냥 알아서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컸죠. 동생들은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뭔가 가르쳐 주는 것을 좋아해 어렸을 때부터 꿈이 선생님이기도 했고요."

수진 학생의 봉사활동은 모교의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만나면서, 물 만난 물고기처럼, 풍성하게 가지를 쳐 나갔다. 신입생 때부터 매년 'SNU멘토링'에 참여해 청소년 멘티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학습 및 생활 상담을 해줬고, 2019년엔 울산에 가서 교육 소외지역 청소년들에게 다각적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했다. 2020년엔 울릉도에서 현지 중학생들과 함께 울릉도 소개 영상을 만들며 디지털 기기의 활용법을, 지난여름엔 울진 죽변중학교 학생들에게 재난 대응법 및 화재경보기 제작법을 가르쳤다. 관악구와 연계한 'SAM멘토링', 시흥시와 연계한 '스누로' 등에도 참여했다.

"SNU멘토링은 일종의 펜팔이었어요. 시공간적으로 제약이 뚜렷해 어떻게 하면 멘티에게 제 뜻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까 궁리했죠. 이모티콘도 넣고 학교 풍경을 담은 사진이나 동영상도 찍어 보냈어요. 8~9월에 딱 한 번 관악캠퍼스 투어 올 때 얼굴 보는데 온라인상에선 까불거렸던 친구가 막상 만났을 땐 쭈뼛거리기도 하고, 어떨 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서 재밌었죠. 확실히 현장에서 아이들을 직접 만났을 때 더 빨리 친해지긴 해요. 하지만 비교적 길게 교류를 이어가는 쪽은 온라인이기도 해서 상호보완해주는 것 같습니다."



봉사의 경험은 또 다른 봉사활동으로 이어졌다. 울진에서 재난 대응법을 교육하던 중 다문화 가정 학생을 만났던 것. 우리말을 거의 못 하니 아마도 교육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긴 힘들었을 테고, 그 배경엔 역시 우리말에 능숙지 않은 외국인 엄마가 있을 터였다. 자국에서 치르기에도 큰일이 아닐 수 없는 임신·출산을 낯선 나라에서 감당하는 그들에게 마음이 가닿았다. 다문화 가정 산모들에게 임신·출산에 대한 정보와 정부 지원 정책을 소개하는 봉사활동을 병행했다.

"초등학교 4학년 멘티를 만났을 때였어요. 공부하는 걸 안 좋아하는 여학생이었죠. 자기는 어차피 해도 안 되는, 원래 그런 애라고 스스로 규정짓는 거예요. 반년 동안 지켜보면서 부모님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한테서 이렇다 할 기대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 열심히 안 하는 애로 낙인찍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한 사람의 일생이 주위의 시선이나 편견에 따라 좌우된다는 데 거부감이 솟구치더군요. 다문화 가정 산모들한테도 비슷한 인상을 받았어요. 혜택 정보를 열심히 챙겨다 주면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짐작하건대 이방인이 내국인과 동등한 혜택을 누려선 안 된다는, 그런 시선 때문이겠죠. 그러한 불평등 내지는 부조리함을 깨고 싶어서 더 열심히 봉사활동에 매달린 것 같아요."

수진 학생에게 봉사활동은 남 좋은 일만은 아니었다.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응원을 아끼지 않는 부모님, 수업이 끝나도 더 가르쳐 주는 선생님, 졸릴 때 깨워주고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는 친구들…, 같은 것들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고. 봉사활동으로 세상을 더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운 셈이다. 현재 참여 중인 '꿈꾸는 그림책' 봉사활동은 장애인을 그저 돌봐줘야 할 대상에서 함께 성장하는 협업의 동료로 끌어올린다.

"고등학교 2학년 발달장애인 학생과 함께 동화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비장애인 멘티와 같이 다닐 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이 친구와 함께 다니면 옆에서 다른 어르신들이 수고한다는 말씀을 심심치 않게 하세요. 장애인과의 동행은 그 자체로 짐이란 인식이 전제된 거죠. 직접 대하고 겪어보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매체를 통해서만 접하다 보니 쉽게 편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물론 다른 점이 있죠. 하지만 사람은 원래 다 다르잖아요. 차이를 보는 데 매몰돼 남과 나를 지나치게 구분 짓는 것 같아요. 장애인의 시각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이 무척 많은데도요." 나경태 기자

서울대학교발전재단 '천원의 식사' 모금 사업

누군가를 위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천원의 식사' 모금 사업은 학생들이 한 끼 1,000원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식사를 해결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금 사업입니다.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연구공원본관(940동) 2층
TEL. 02. 871. 8004 FAX. 02. 872. 4149 Email. snuf@snu.ac.kr
→ 온라인 후원하기: snu.or.kr/1000won

CREATE TOMORROW
내일을 이루는 꿈 * 서울대학교발전재단

동문맛집

"해산물 고유의 맛 살리는 스페인 음식에 반해 식당까지 차렸어요"

안재석 (체육교육14-21)
사당동 '뽀르께노 스페니쉬' 오너셰프

코로나19 창궐 때 1호점 개업 1년에 한곳씩 3호점까지 열어

올해 7월 오픈한 3호점 포르께노 스페니쉬 카페앤펍 전경. 대학로에 1호점, 홍대에 2호점이 있다. 대표 메뉴인 꿀대구(위), 뽀르께노식 문어요리.

스페인어 '뽀르께노(¿Por qué no?)'는 우리말로 '왜 안 되겠어?', 영어로는 'Why not?' 정도된다. 'no, not, 안' 등 부정 어휘가 붙었지만, 역설적으로 강한 긍정을 의미한다. '뽀르께노 스페니쉬'의 안재석 오너셰프는 체육교육과로 입학해 서어서문학과를 복수 전공했고, 코로나19로 인한 외식업 빙하기 때 식당을 개업했다. 인생의 굽이마다 뜻밖의 선택을 해온 그에게 이유를 묻자 '뽀르께노?'하며 어깨를 으쓱했다. 사당동에 있는 '뽀르께노 스페니쉬 카페앤펍'에서 안재석 동문을 만났다.

"2021년 대학로 1호점 '비스트로', 2022년 홍대 2호점 '타파스바'에 이어 올해 7월 사당동에 3호점 '카페앤펍'을 오픈했습니다. 1·2호점이 저녁에 영업하는 작은 술집이라면 3호점은 브런치 메뉴를 준비해 점심 장사도 하고, 20명 이상 단체 손님도 받을 수 있게 규모를 키웠죠. 관악캠퍼스와 가까워 대학원 다니는 학교 친구들과 재직 중인 은사님께 한번 오시라는 말씀도 드리기 편해졌고요(웃음). 매장 세 곳의 위치를 이어보면 딱 정삼각형이 돼요. 적어도 서울 안에선 스페인 음식점이 너무 멀어 못 먹을 일은 없죠. 세 곳 모두 역에서 도보 1분 거리라 접근성도 좋습니다."

안 동문이 스페인에 빠져든 건 대학 2학년 진학을 앞둔 겨울방학 때, 동기들과 함께 떠난 배낭여행이 계기가 됐다. 이전에도 가족 여행으로 해외에 다녀온 적은 있었지만, 온전히 자기 힘만으로 계획을 짜고,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숙소를 잡는 여행은 스페인이 처음이었던 것. 온화한 기후, 풍부하고 다양한 먹거리, 낯선 이들과도 편견 없이 어울리는 분위기까지. 귀국 후에도 방학 때면 늘 스페인으로 떠나 '스페인에 미친 놈' 소리를 들을 만큼 깊게 매료됐고, 2019년 2학기 땐 교환 학생으로 마드리드 대학에서 공부했다. 스페인의 감성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게 꿈이라고.

"처음엔 스페인어 강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2주 과정 수업 마지막 날엔 항상 뒤풀이 겸해서 직접 요리한 스페인 음식을 대접했죠. 그러다 코로나 팬데믹이 닥치면서 대면 강의가 거의 불가능하게 됐어요. 화상 강의도 해봤지만, 너무 답답했죠. 스페인 덕후들과 교류하며 이야기 나누는 재미로 살았거든요. 어떡하면 좋을까 가만 생각해보니, 방역이 암만 중해도 밥 안 먹고 살 순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당을 차렸습니다. 사람들 만나고 싶어서. 강의 뒤풀이 때 대접하던 '꿀대구'가 저희 가게 시그니처메뉴가 됐죠."

꿀대구는 대구 스테이크에 꿀을 끼얹고 볶은 삐스또와 루꼴라 샐러드를 곁들인 식사 메뉴. 가격도 비교적 저렴해 테이블당 꼭 하나씩은 주문이 들어온다. 오랜 시행착오 끝에 개발한 '뽀르께노식 문어요리'도 인기. 큼직한 문어 다리를 저온에서 올리브유로 삶은 뒤 매콤한 브라바 소스를 발라 먹는 메뉴다. 으깬 감자와 페스토, 토마토 등을 곁들이면 매운 음식 잘 못 먹는 '맵찔이'들도 무난히 즐길 수 있다.

"스페인 갈리시아 지방에서 문어가 많이 나요. 문어는 현지에서도 알아주는 고급 요리인데 산지가 다르다 보니 같은 조리법을 써도 그 맛이 안 나더군요. 그렇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요리이기도 해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문어를 때려도 보고 삶는 시간을 바꿔보기도 하면서 6개월 동안 연구해 새로운 조리법을 개발했죠. 어느 하나 소중한 메뉴가 아닐 수 없지만, 가게 이름을 따 메뉴 이름에 붙일 만큼 애정이 가요. 스페인은 해산물을 비롯해 식재료 자체가 워낙 좋아서 재료를 살리는 요리가 많습니다. 저희 식당도 신선한 해산물을 들여와 최소한으로 가공을 하되 가장 잘 어울리는 소스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조리해요."

대구 스테이크에 까만 버섯 크림을 끼얹은 '숯대구'와 레드와인에 숙성시켜 고기 맛이 부드럽게 감기는 '돼지뽈살와인찜', 고소한 새우 기름에 매콤한 파프리카 파우더를 듬뿍 얹은 '감바스 알 삘삘' 등 메인메뉴 외 '멜론꼰하몽', '꿀가지튀김' 등 사이드메뉴도 다양하다. 특히 '타파스'는 바게뜨빵 위에 버섯, 치즈, 계란, 옥수수 등을 자유롭게 올려 먹을 수 있어 스페인식 전채 요리이자 대표 간식으로 꼽힌다.

맛있는 음식에 술이 빠질 수 없는 건 동서고금의 진리. 뽀르께노 스페니쉬는 40여 가지의 스페인산 와인과 뱅쇼를 비롯한 칵테일, 바르셀로나 대표 맥주 '에스뜨레야 담', '리몬첼로 하이볼' 등을 제공한다.

"국내에서 스페인 하면 아직은 낯설고 먼 나라란 인식이 강하잖아요. 투우, 플라멩코 같은 몇 개의 키워드와 열정적이라는 막연한 이미지뿐이죠. 저희 식당을 통해 스페인 음식을 알리고 스페인을 좀 더 편하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팬시한 음식보단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스페인 가정식'을 추구하는 이유기도 하죠. 가까운 외국인 친구 집에 놀러 가 환대받고, 편안하게 밥 먹고, 기분 좋게 떠나는, 그런 기분을 선사하는 식당이 되고 싶습니다."

일요일·월요일 휴무. 1·2호점은 예약제. 포장 가능, 배달 불가. 주차는 인근 유료 주차장 이용 가능.

문의: 0507-1365-6067

나경태 기자

화제의 동문 유튜버

'진오비산부인과' **심상덕** (의학80-86) 동문

작은 동네 병원이 구독자 11만, '양심 산부인과'의 일상

마포구 동교동 진오비산부인과 휴일에도 병원서 1시간 거리에

마포구 동교동 진오비산부인과는 '양심 산부인과'로 불린다. 과잉진료가 없다는 이유지만 유일한 의사인 심상덕 원장의 소신과 철학 덕택이기도 하다. 집 없이 분만실 한쪽에 숙식하며 분만을 돕고, 큰 빚을 지고 경영난에 시달리는데도 수가 높은 제왕절개 대신 되도록 자연분만을 권하는 병원. 어려운 병원 살림에 홍보를 위해 시작한 유튜브조차 어딘가 좀 다르다. 임신·출산 정보와 함께 무덤덤한 듯 은은한 재치가 밴 병원 식구들의 일상이 나란히 흐르는 채널. 그 묘한 매력에 빠져, 험난한 길 걷는 그를 달리 응원할 길 없어 사람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른다. 작은 동네 병원이 그렇게 11만 구독자를 모았다. 심 동문을 이메일로 인터뷰했다.

-스스로 생각하는 채널의 매력은.

"특별히 매력이 따로 있는 것 같진 않다. 의학 정보 채널도, 브이로그도 아니고, 그렇다고 먹방도 아니고. 채널을 만들고 유지하던 중 공중파 방송에서 저희 병원과 제가 소개되고, 응원 차원에서 구독해 주신 덕분이다."

-직원들과 함께하는 콘텐츠가 많은데, 부담스러워하진 않나.

"개인이 아닌 병원 채널이니 소속된 직원 모두 참여해서 함께 가꿔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지만, 콘텐츠를 풍부하게 하는 차원에서 참여시키고 있다. 원장의 갑질도 없지 않다ㅎㅎ"

-최근 출산 후 인터뷰가 올라오던데.

"임신과 출산은 임신하지 않고, 출산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생각하기 어려운 매우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게 평소 생각이다. 내 목소리보다 실제 출산하신 분들이 그 생각을 들려준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새롭게 기획했다."

-임신·출산에 부정적인 일부 인식이 좀 바뀔까.

"내 개똥철학 중 하나가 '세상은 자신이 보는 대로 보인다'는 거다. 여럿이 함께 사는 세상보다 혼자 사는 세상이 좋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렇게 보이고, 반대로 생각하면 또 정말 그렇게 보인다. 졸저 '낙태와 낙태'에 썼던 말이 있다. '상자 안에 깨지기 쉬운 전구가 들어있다 생각하고 망치로 상자를 깨서 확인하면 정말 그런 위험한 물건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동그랗고 예쁜 것이 있어 세상을 밝힌다 생각하고 소중하게 개봉하면 정말 그런 걸 보게 될 것이다'. 결혼과 출산이 삶의 모범 답안이라는 건 아니다. 그저 어느 것을 원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런 세상을 만나게 된다는 것뿐이다."

-신생아 10명 중 6명이 제왕절개로 태어난다는데, 진오비산부인과는 아직 자연분만을 최우선으로 권한다고 들었다.

"산부인과 전공과 개업을 택하면서 추측했던 두 가지가 모두 틀렸다. 첫 번째는 인류가 존속하는 한 산부인과의는 늘 필요할 것이란 생각이다. 틀린 건 아니지만 지금처럼 초저출산을 미처 예상 못했다. 두 번째는 자연적인 게 인간이 만들어낸 것보다 좋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자연분만을 돕는다면 비록 큰 병원이 아니라도 경쟁력 있을 거란 생각이다. 자연분만은 산모분들께 그리 중요한 게 아니고, 개업가에선 결국 규모가 제일 중요했다. 그렇더라도 내 철학을 포기할 생각은 없다. 하는 날까지는 지금처럼 해 보는 수밖에 없다."

-옛 산모들이 개원기념일을 챙기는 병원은 처음 봤다. 좋아해주는 이유가 뭘까.

"산모 혹은 환자분들이 의료인에게 가지는 기본적인 호의와 감사의 마음 덕이다. 다만 출산만 하고 다시 방문하지 않는 곳으로 끝나기보다, 출산하고 나서도 놀러 오고 싶은 병원이면 좋겠다는 희망은 있었다."

-'양심 산부인과'란 말에 대한 생각은.

"감사한 일이지만, 어떻게 하는 게 양심이고 비양심인진 모르겠다. 의료란 특수성이 있어 어디까지 과잉이고 적정이며, 부족인지 명확하지 않다. 대부분의 의사는 자신이 생각한 양심에 따라 진료를 한다. 검사 범위, 치료 방법에 대해 의사 간에 호불호가 있을 뿐이다."

-분만 연락이 올까봐 쉴 때도 병원과 1시간 거리 이상 외출을 하지 않는다고.

"의사 혼자 출산 산부인과를 운영하다 보니 운신의 범위가 좁다. 멀리 가긴 부담스럽고 두어 달에 한 번 부모님 댁, 처가댁 가는 게 사회생활의 전부다. 원래도 불효자인데, 병원 하면서 좋은 구실까지 생겨 '찐 불효자'로 산다. 나쁜 남편, 도움 안 되는 아빠의 삶은 덤이다." 그래도 채널에는 병원 근처에서 했던 아내와의 주말 데이트, 가족 나들이 영상이 종종 올라온다. 여가 시간에는 직접 산모수첩을 만든다. 손제본한 책자에 초음파 사진과 설명을 붙여 산모에게 건넨다. "유튜브는 병원 홍보에도 도움이 되지만, 개인 취미로도 손색 없다"고 했다.

-유튜브 수익이 병원에 보탬이 되나.

"병원 운영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다. 경제적인 점보다도, 다들 어려우실 텐데 십시일반 도와주려 애쓰시는 분들이 있다는 점이 정신적으로 큰 힘이 된다."

-많이 듣는 말이겠지만, 힘들지 않은가.

"힘들다. 왜 이렇게 힘든 길을 택했냐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말해줄 것이다. '나도 몰랐다'. 거의 다 온 길이고 이제 돌아갈 시간도 힘도 없다. 그러니 남은 길도 그냥 가는 수밖에."

-은퇴 후엔 다른 삶을 살고 싶을 것 같다.

"세계 각지를 다니며 여행 유튜버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면 바랄 게 없겠다. 내가 해 보지 못한 것이니까. 앞으로도 가능성이 매우 낮기도 하니, 그런 상상을 가끔 해 본다."

심 동문은 매주 수요일 저녁 라이브 의료상담을 연다.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 그를 응원할 수 있다. 서브 채널 '까칠의'에는 지극히 사적인 영상을 올리고 있다.

박수진 기자

화제의 책

"산에 나를 버렸더니 산이 나를 살렸다"

한국을 대표하는 오지 탐험가이자 캠핑 선구자인 박상설 동문의 '잘 산다는 것에 대하여'(토네이도, 2014)가 '박상설의 자연 수업'으로 새롭게 복간됐다. 생전에 남긴 단 한 권의 저서가 절판돼 아쉬움이 크던 차, 2021년 겨울 93년간의 지구별 여정을 마무리하고 자연의 품으로 돌아간 박상설 동문을 추모하는 시간 속에 복간 작업이 이뤄졌다.

'박상설의 자연 수업'은 저자가 손수 검수한 초판본 구성을 훼손하지 않되, 저자가 직접 쓴 글과 촬영한 사진만으로 판면을 재구성해 저자의 고유한 세계가 심플하게 드러나도록 집중했으며, 설산 트래킹을 즐겼던 만년의 삶을 기념해 화이트 에디션으로 단장했다.

박상설의 자연 수업

박상설(기계공학49졸) 캠프나비 호스트
나무와달

박 동문은 익히 알려졌듯 자연주의, 심플라이프로 대표되는 아웃도어 세계의 대가다. 아울러 몸으로 뒹굴고 체험한 세계를 오랫동안 곱씹어 사유하고 기록하는 일에도 독하리만치 바지런했다. 십수 년 동안 '아시아엔(THEAsiaN)' 등의 매체에 자연주의 칼럼을 기고했으며, 오대산 주말레저농원 '캠프나비'에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숲속 인문학 강좌를 열정적으로 펼쳤다. 그런 그가 단 한 권의 저서만 남긴 이유는 무언가를 새로 짓고 만드는 일이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경계하는 실천 인문학자였기 때문이다.

2014년 86세 나이에 '잘 산다는 것에 대하여'를 출간했을 때, 삶 자체가 오지 탐험의 궤적이라 할 정도로 드라마틱하거니와 생사의 기로에서 자연에 대한 회심을 고백하는 단호하면서도 진정 어린 글에 수많은 독자가 환대한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조선일보와 신동아를 비롯해 주요 일간지에 전면 인터뷰 기사가 실렸고, KBS 등의 방송국에서 아흔 살 노인의 백패킹 현장을 밀착 취재해 다큐로 방영했으며,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에서 등산학교 및 숲속 인문학 강좌가 빗발쳤다. 노구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 사람들의 무수한 요청을 기꺼이 소화하며 눈을 감는 날까지 캠프나비를 찾는 이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준 박상설, 그의 저서에 '자연 수업'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붙인 이유다.

박 동문은 '월든'을 쓰기 위해 숲속 오두막에 은둔했던 헨리 데이비드 소로와는 결이 다르다. 그는 도시와 시골을, 문명과 자연을 동시에 누리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편을 고민한 이 시대 유일한 자연주의 실천가다.

아울러 말과 글로 가르치려 들기보다 직접 행동하여 보이고 실천하여 증명하는 일에 필사적이었다. 그래서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그의 모든 말과 글이 오늘 우리에게 귀감으로 남았다. 참 스승의 교육은 이렇게 스스로를 증명한다. 십수 년 전부터 캠핑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주말농장 및 세컨하우스 등이 주요 여가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어느 때보다 박 동문의 통찰이 긴요해졌다. "산에 나를 버렸더니 산이 나를 살렸다" "숲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지운다" "텐트 안은 인생과 철학을 품은 우주다" 등의 단말마는 책상머리에서 튀어나온 것이 아니다. 야지에 뒹굴고 야산을 오르내리며 몸소 체득한 우주적 깨우침이다. 위기의 지구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나침반이요 망원경이다. 글=나무와달 제공

BOOKS

아름다운 동행, 40년

윤희진(축산63-67) 다비육종 회장
다비육종

윤희진 동문이 양돈업에 투신한 지 50년, 다비육종 창립 40주년을 맞아 그간의 활동을 한 권의 자료집으로 엮었다. 지금까지 종돈을 포함한 돼지 약 100만 마리를 공급한 다비육종은 국내 유명 식당들이 가장 선호하는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국내 최대 양돈조합인 도드람농협의 산파 역할도 윤 동문이 했다. 특히 자료집에선 통일장학회를 통해 새터민들의 정착을 돕고, 일가재단를 비롯해 여러 사회단체의 나눔 활동을 집중 조명했다. 윤 동문은 "사람은 나눔으로 인생을 만들어 간다"고 강조한다.

또 태양이

오종권(법학65-69) 법무법인 새한양 변호사
지식과감성

성경을 경전으로 하는 종교의 경우 영국의 어느 연구 단체가 5년마다 발표하는 것에 따르면 4만 3000파가 넘는다고 한다. 도대체 성경이 무엇이길래 세계 역사를 통틀어 가장 영향력 있는 책으로 군림하고 있고, 지금까지 50억 부가 넘게 발행됐으며, 그 주요 인물인 예수에 관한 책이 미국 국회 도서관에 가장 많은 종류로 비치돼 있는 걸까? 오종권 동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인수, 수혜, 장현, 수윤 등의 인물 등의 대화를 통해 성경을 탐구해 나간다. 오 동문은 그동안 소설 '파문', '별들의 노래', '눈' 등을 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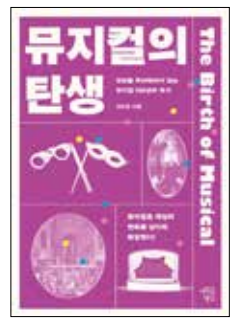
아웃퍼포머의 힘

송의달(외교82-86) 조선일보 선임기자
W미디어

가짜 뉴스의 범람과 유튜브 같은 소셜미디어의 득세는 '진짜 언론'과 '유사 언론'의 경계까지 무너뜨리고 있다. 100년 넘게 통용되어온 미디어 법칙이 파괴되고 있는 지금, 한국 언론은 어떻게 생존하고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까? 올해 34년차 현역 언론인인 송의달 동문은 인력 증원·처우 개선 같은 외부 변화보다는 저널리스트들의 내적인 각성과 분발에서 해법을 찾는다. 저널리즘 본래의 매력에 빠져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9명의 세계적인 일류 저널리스트들, 즉 아웃퍼포머(outperformer)의 '열정'과 '노력'에 주목한다.

뮤지컬의 탄생

고희경(불문83-87) 홍익대 공연예술대학원장
마인드빌딩



뮤지컬이란 장르가 본격적으로 등장했던 20세기 이후의 뮤지컬 발전사를 주요하게 다룬다. 그 시대의 사회상, 정치·경제적인 상황이 뮤지컬 작품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으며 그로 인해 어떠한 트렌드가 생기고 사라졌는지, 20세기 이후의 뮤지컬 역사를 구체적인 작품을 통해 밝혀갔다. 기존 뮤지컬의 역사를 다룬 책들은 공연계 안에서의 내적 흐름을 중심으로 작품 내용이나 작가와 작곡가의 소개 및 창작 과정을 집대성한 방식을 취했다면, 이 책은 왜 그 시대에 이러한 작품이 등장하였는지를 사회, 경제, 문화적인 관계성을 통해 살폈다.

비욘드 스트래티지

신재훈(경영84-89) 세아STX엔테크 대표
박영사

기업의 영원한 숙제는 생존과 성장이며 바로 이 생존과 성장을 위한 것이 전략이다.

성과를 창출하는 전략은 어떻게 수립하고 실행해야 하는가? 이 책은 전략의 기존 접근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성과 창출의 비밀을 담은 새로운 전략 모델을 제시한다. 신 동문은 "전략으로 성과를 창출하려면 역설적으로 전략을 넘어서야 한다. 전략을 넘어 비즈니스 모델과 디지털 기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해를 아우르는 통합 관점에서 접근해야 전략을 통한 성과 창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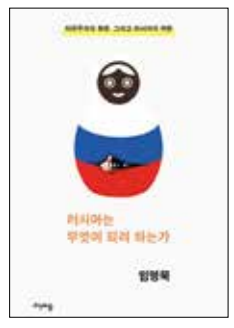
대마약시대

백승만(제약97-01) 경상대 약대 교수
히포크라테스

'전쟁과 약, 기나긴 악연의 역사'를 쓴 백승만 동문이 이번에는 '펜타닐'을 파헤친다. 저자는 이 책에서 거대 제약회사의 탐욕과 제도적 허점 등 현재 미국에서 펜타닐 사태가 발생한 맥락을 상세히 풀어냈다. 또한 펜타닐을 발명한 폴 얀센의 이야기에서부터 이 약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던 모르핀 등 아편 유사제의 역사까지 함께 되짚고 있다. 기적의 진통제를 개발하려 했던 학자들, 마약을 상품으로 판매하려 했던 인물들, 마약과 싸우고 저항하려 했던 사람들이 뒤얽힌 이야기 속에서 펜타닐의 진실을 확인할 수 있다.

러시아는 무엇이 되려 하는가

임명묵(아시아언어문명학부13입) 모교 석사과정 / 프시케의 숲



'K를 생각한다'를 통해 주목할 만한 신예 인문·사회과학 작가로 자리매김한 임명묵 동문이 탄탄한 전문성과 필력으로 러시아라는 세계를 탐구해 나간다. 저자는 몽골의 피지배 시기부터 표트르 대제의 서구화, 소비에트 연방의 형성과 뼈아픈 해체, 그리고 러시아의 재건에 이르기까지 장대한 시선으로 러시아의 역사를 살펴본다. 특히 푸틴 통치기를 1기부터 3기까지 면밀히 분석해, 일견 부조리해 보이는 러시아의 행보를 신유라시아주의라는 관점 아래 설득력 있게 규명해낸다. 그 과정에서 일세를 풍미한 자유주의가 쇠퇴하고 있음을 밝힌다.

무경신서

이국노(AMP 61기) 사이몬 명예회장
직지

이국노 동문은 1973년 수도용 파이프 중소기업 사이몬을 설립한 플라스틱업계 원로 기업인이자 검도 8단, 태권도 9단의 경지에 오른 무도인이다. 저자는 평생을 무도에 심취해 연마한 지식과 실천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무예와 무도의 종류, 문화, 정신에 관해 500여 쪽에 걸쳐 들려준다. 이 동문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검법 '예도(銳刀)'를 만들어 전승해오는 무의 문화 강국이며, 태권도를 만들어 국기로 만든 창의적인 무예 강국"이라고 말한다. 6장의 무경(武經), 7장의 무담(武談) 등에 등장하는 한국과 일본 무술인의 이야기는 흥미롭다.

EXHIBITIONS

이민하 개인전 '폭격의 자장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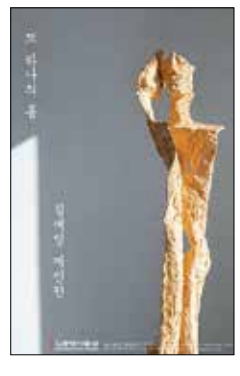
2024년 1월 13일까지 종로구 수림큐브

수림미술상 2019 수상 작가 이민하(동양화98-02) 동문의 개인전. 이 동문은 인간 본성에 회의감을 들게 하는 사건들에 관심을 갖고 영상, 설치 등의 작품을 만들어왔다. 자신도 겪었던 여성의 임신과 출산 이후 신체·사회적 변화에 주목, 다양한 감각 속에서 모성을 복합적으로 드러낸다.

문의: 02-765-7911

김세일 개인전: 또 하나의 몸

2024년 1월 14일까지 종로구 김종영미술관



조각가 김세일(조소78-85) 동문은 나무부터 스카치테이프, 철사, 석분 점토에 이르기까지 재료는 달리 해도 철저한 수작업을 고수해왔다. 김종영 미술관은 그의 손자국이 배어 있는 최근작에서 부처의 경지에서 노니는 '유희삼매(遊戱三昧)'가 떠오른다고 소개한다.

문의: 3217-6484

CONCERTS

2024 신년음악회 비엔나 스타일

2024년 1월 12일 송파구 롯데콘서트홀

매년 1월 1일 열리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신년음악회를 우리 식으로 재해석한 공연. 경쾌한 비엔나 왈츠와 오페레타 아리아 및 듀엣, 한국 가곡 등을 들려준다. 소프라노 박소영(성악05-09) 동문과 테너 김민석이 출연하고, 지휘자 김광현(작곡00-07) 동문의 지휘로 코리아쿱오케스트라가 연주한다.

문의: 02-3443-9482

김선민·최유진 듀오 연주회

2024년 1월 7일 예술의전당 인춘아트홀

바이올리니스트 최유진(기악98-02·사진) 동문과 피아니스트 김선민씨가 연주하는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 시리즈 첫 공연. 미국 줄리어드 음대에서 석사학위, 보스턴대 음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최 동문은 2021년부터 김선민씨와 브람스와 슈베르트 소나타 등 듀오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다.

문의: 02-3453-7700

동정

'동정'란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인사, 수상, 행사, 결혼 등 많은 제보를 부탁합니다. 매달 30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신문에 게재됩니다.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416호 이메일 news@snua.or.kr 전화 02-886-2219 팩스 02-886-2218

인 사

신수정(기악59-63 모교 명예교수) 11월 23일 대한민국예술원 제41대 회장에 선출.

이건우(기계공학 74-78 모교 명예교수) 최근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제5대 총장에 선임.

오명도(기계공학 75-79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11월 11일 가나안농군학교 이사장에 취임.

조희대(법학75-79 성균관대 석좌교수) 12월 11일 제17대 대법원장에 취임.

권영세(법학77-81 국회의원) 11월 22일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제13대 회장에 선출.

김상은(의학77-83 모교 명예교수) 10월 1일 가천대 석좌교수 및 뇌과학연구원 원장에 취임.

이윤태(전기공학 79-83 전 삼성전기 대표이사) 11월 8일 LX세미콘 최고경영자(CEO)에 내정.

이관섭(경영80-84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12월 4일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임명.

이창용(경제80-84 한국은행 총재) 11월 13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국제결제은행(BIS) 총재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시스템위원회(CGFS)' 의장에 선임.

양종희(국사81-87 KB금융지주 부회장) 11월 21일 KB금융지주 회장에 취임.

정형식(공법81-85 대전고등법원장) 11월 16일 헌법재판관 후보에 지명.

김철주(경제82-86 전 아시아개발은행 연구소 ADBI 부소장) 12월 5일 제6대 생명보험협회 회장에 선임.

방문신(경영82-89 SBS 총괄부사장) 11월 27일 SBS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

정대화(기계설계 82-86 LG전자 생산기술원장) 11월 24일 LG전자 사장에 선임.

김경호(국제경제 83-87 전 LG전자 부사장) 11월 28일 오뚜기 글로벌사업본부장(부사장)에 선임.

이재진(신문83-87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11월 10일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에 선임.

황상무(신문83-87 전 KBS 앵커) 12월 4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에 임명.

김이배(국제경제 84-88 제주항공 부사장) 11월 27일 제주항공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

이규석(경영84-88 현대차·기아 구매본부장) 11월 17일 현대모비스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

채희동(의학84-90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교수) 11월 5일 대한골다공증학회 총회에서 제12대 대한골다공증학회 회장으로 선임.

윤수현(경제85-89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11월 13일 한국소비자원 원장에 임명.

이우영(대학원85-87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11월 13일 제16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 취임.

김이태(경영86-90 삼성전자 부사장) 11월 27일 삼성벤처투자 대표이사 사장에 내정.

김헌주(사법86-91 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11월 27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에 임명.

서강현(국제경제 86-90 현대자동차 기획재경본부장) 11월 17일 현대제철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

유재영(경영86-90 GS칼텍스 부사장) 11월 29일 GS파워 대표이사에 선임.

전영태(의학86-92 분당모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11월 9일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차기 회장에 선출.

이동연(조선해양공학87-91 삼성중공업 조선해양연구소장) 11월 30일 삼성중공업 부사장에 선임.

이준용(경영87-91 미래에셋자산운용 운용부문 총괄대표) 11월 23일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이사에 선임.

김의석(의학89-95 모교 분당병원 감염내과 교수) 11월 7일 미국감염학회 석학회원에 선임.

이소란(의류89-93 삼성물산 패션부문 상무) 11월 30일 삼성물산 패션부문 해외상품사업부장 부사장에 선임.

김상준(국제경제 92-97 애경산업 전무) 11월 27일 애경산업 대표이사에 선임.

오성익(국제경제 93-97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기획관) 11월 1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역개발정책위 비도시정책분과 부의장으로 선출.

김건호(역사교육10-17) 11월 7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청년보좌역에 임용.

수 상

홍창의(의학45-47 모교 명예교수) 11월 14일 제19회 서재필의학상 수상자에 선정.

안병훈(행정57-61 기파랑 대표) 11월 24일 협성문화재단이 수여하는 '협성사회공헌상' 수상. 상금 5000만원.

이기태(불어교육 59-67 시인) 11월 25일 한국문학진흥재단 청하문학회가 수여하는 제33회 문학상 수상.

김동녕(경제64-68 한세예스24 회장) 11월 23일 한미기업인친선포럼(KABFF)이 수여하는 '한미기업 친선대상' 수상.

김기병(행대원65-67 롯데관광개발 회장) 11월 15일 한일관계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일본 외무대신 표창 수상.

권동수(기계공학 76-80 로엔서지컬 대표) 11월 8일 대한민국혁신창업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

김기남(전자공학 77-81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11월 23일 중국 공학기술계 최고 학술기관인 중국공정원 외국 회원에 선정.

김종석(보대원78-80 알피바이오 고문) 최근 '시와문화' 2023년 가을호 시 신인상 수상.

강대희(의학81-87 모교 예방의학과 교수) 11월 16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제9회 올해의 교수상 수상자에 선정.

박기호(의학81-87 모교 안과학교실 교수) 11월 23일 제130회 대한안과학회 학술대회에서 학술선구자상 수상.

이상엽(화학공학 82-86 KAIST 연구부총장) 11월 23일 중국 공학기술계 최고 학술기관인 중국공정원 외국 회원에 선정.

오종한(사법83-87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최근 톰슨로이터 산하 법률 전문지인 'ALB'가 뽑는 '올해 최고의 경영변호사'로 선정.

류재철(기계공학 85-89 LG전자 H&A 사업본부장) 11월 22일 제49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금탑산업훈장 받음.

김동식(국문86-91 인하대 한국어문학 교수) 11월 11일 제34회 '김환태 평론상' 수상.

손건석(농업기계 87-91 한국유미코아 연구개발총괄사장)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외국기업협회가 개최한 외국기업의 날 기념식에서 은탑산업훈장 받음.

예종철(전기공학 88-93 KAIST 교수) 11월 24일 '최석정상' 수상자에 선정.

정연승(경영89-93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 11월 16일 롯데와 한국유통학회가 수여하는 제5회 상전유통학술상 최우수학술연구상 수상.

양혜규(조소90-94 미술 작가) 최근 독일 경제 잡지 '캐피탈'이 선정한 올해 '세계 100대 작가'에 한국 작가로는 유일하게 선정.

김상현(수학94-97 고등과학원 교수) 11월 24일 '최석정상' 수상자에 선정.

이관형(재료공학 95-00 에스그래핀 대표) 11월 8일 '2023 혁신창업국가 대한민국 국제 심포지엄'에서 대한민국혁신창업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

안익진(컴퓨터공학97-04 몰로코 대표) 11월 8일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기업가 정신 부문 '2023년 최고의 기업가'로 선정.

임영운(대학원95-97 모교 생명과학부 교수) 11월 23일 동북아생물다양성연구소가 수여하는 '제18회 동북아생물보전대상' 수상.

이정봉(지구환경과학99-07 중앙일보 기자) 11월 30일 생화학분자생물학회가 수여하는 '올해의 생명과학보도상' 수상.

이명섭(전기공학 02-10 KBS PD) 11월 3일 KBS 50년 god 25년 대기획 'ㅇㅁㄷ 지오디'로 이달의 PD상 수상.

기 타

임광수(기계공학 48-52 임광토건 명예회장) 10월 5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국제학술원연합(UAI) 총회에서 제3회 '임광수 상' 시상식 거행. '임광수 상'은 2019년 11월 국제학술원연합(Union Academique Internationale) 100주년을 기념해 제정됐으며, 올해는 벨기에 겐트대학교의 고고학자인 POSSUM PINC 수석 박사후 연구원(FWO)이 수상.

이종철(고고인류 62-66 전 국립전통문화대 총장) 11월 7일 국립민속박물관 개관 30주년을 기념해 박물관 세계화에 공헌한 정년간부 3명에게 기념 메달과 민속문화상 상금 200만원 전달.

이소라(법학63-68 공주대 지역개발연구소 연구교수) 전국 도별 논매기소리 총서 완간.

김춘옥(회화64-68 한국화진흥회 이사장) 12월 1일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제7회 한국화의 날 기념식 개최.

정태성(무역69-73 플랜트포럼 초대회장) 2021년부터 동해안 바닷길을 걷기 시작해 3년 만인 지난 11월 5일 동·서·남해안길(K-둘레길) 총 4000km 완주.

이우종(공업교육 72-76 청운대 명예총장) 12월 8~9일 베트남 도시계획개발협회 25주년 창립기념식에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대표로 참석해 축사.

이채필(행대원83-87 전 고용노동부 장관) 12월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모럴 해저드 문제는 없는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 개최.

박규홍(AIC 11기 에스아이티테크놀로지 대표) 11월 8일 라마다 수원호텔에서 이노바 솔루션 기술세미나 개최.

삼가 명복을 빕니다

전정극(기계공학51-55 전 모바일이동통신 대표) 11월 18일 별세(93세)
김정년(경제51-55 전 모교 경영대학장) 11월 7일 별세(91세)
이승호(축산51-56 전 광주중 교장) 11월 19일 별세(91세)
김두만(임학52-56) 11월 30일 별세(95세)
김종건(영교53-57 고려대 명예교수) 12월 2일 별세(89세)
조동원(법학54-58 전 동화통신사우회 회장) 11월 28일 별세(91세)
손홍균(행정54-59 전 서울은행장) 11월 19일 별세(87세)
황정현(광산56-60) 11월 29일 별세(86세)
이돈형(사회58-63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11월 2일 별세(85세)
문형상(의학61-67 전 강릉아산병원장) 11월 13일 별세(81세)
이병규(경제63-67 전 한미은행 감사) 11월 19일 별세(78세)
이동렬(행정68-72 전 현대상선 대표) 11월 2일 별세(74세)
김성철(치의학76-82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학부 명예교수) 11월 23일 별세(71세)
이으뜸(바이오시스템소재99-10) 11월 9일 별세(42세)

보내주신 사랑, 역사가 됩니다

보내주신 귀한 회비는 관련법규에 따라 엄격·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자랑스러운 44만 서울대인의 새 역사 창조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고문·자문위원·회장단·특별과정 동창회장·논설위원·평생회비·연회비·지부분담금 등 : 2023. 10. 24 ~ 2023. 11. 23
성명 오른쪽 숫자 : 입학 연도(미확인시 졸업 연도) / 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회비 납부 방법

구 분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일반회원	10,000원	50,000원	500,000원 (65세 이상은 300,000원)
이사회원		150,000원	-

회비 납부하시면

- ○매월 총동창신문 제공
- ○익년도 탁상달력 제공
- ○경조 서비스 이용
- ○건강검진 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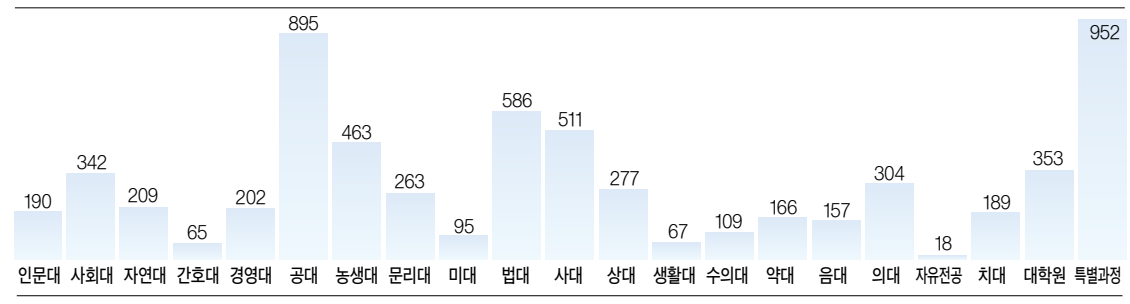
- 입회비는 입회 시 한번 납부하시면 됩니다.
- 회비는 연회비와 평생회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연회비와 평생회비 중 한 가지만 선택해서 납부해 주십시오.
- **지로 :** 지로용지를 가까운 금융기관의 공과금 자동화기기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은행계좌 :** 다음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면 됩니다.(성함, 학과, 입학 연도를 같이 표기 바랍니다) **예금주: 서울대학교총동창회**

농협 079-01-442414 신한 140-001-180304 우리 1005-401-137376 국민 827-01-0248-009

- **신용카드 :** www.snua.or.kr 첫 화면 오른쪽 중간 '동문회비·후원금'배너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없이도 사용 가능)

2023년 단대별 누적 회비납부현황

총 6413명 *11월 23일 현재



자문위원

△강신주 사대 51 △우인성 공대 58

상임부회장

△김창균 사회대 80 △이용식 공대 79
△이우종 공대 72

부회장

△신현우 공대 83 △장중환 의대 69
△황인경 가정대 70

단대동창회장

△서병륜 농생대 69

평생회비·일반

△고광욱 치대 00 △곽상민 법대 98
△곽현구 SPARC 42 △김동욱 농생대 10
△김동훈 자연대 02 △김명수 사대 76
△김민선 SPARC 42 △김병민 SPARC 42
△김수희 SPARC 42 △김영승 SPARC 42
△김왕문 SPARC 42 △김윤상 법대 88
△김재은 SPARC 42 △김정미 치대원 08
△김정환 문리대 54 △김종률 법대 81
△김주열 SPARC 42 △김준영 공대 15
△김태헌 법대 18 △김현준 의대 04
△문주호 경영대 95 △박인규 공대 69
△박택영 공대 00 △성영수 SPARC 42
△손승모 보대원 18 △송승용 법대 93
△신현수 사회대 77 △신호곤 법대 94
△안수남 SPARC 42 △양용규 공대 82
△엄중석 SPARC 42 △염경하 약대 17
△오재혁 공대 85 △유완재 법대 58
△윤규근 공대 07 △윤희경 가정대 91
△이두표 SPARC 42 △이문한 SPARC 42
△이석현 법대 93 △이수창 공대 98
△이우철 농대 74 △이우철 데이터대학원 20
△이준호 인문대 92 △이호성 AMP 94
△이 훈 SPARC 42 △임태혁 법대 01
△임해현 인문대 18 △장형수 사회대 94
△장효자 SPARC 42 △정수경 대학원 71졸
△조수근 자연대 17 △조은결 음대 07
△최성문 자연대 99 △최슬아 사대 10
△최원용 공대 84 △최태은 SPARC 42
△하성재 ACAD 96 △한상돈 대학원 81
△한상순 농대 77 △한준석 경영대 76
△한충석 농생대 21 △한혜진 FIP 18
△황해영 음대 81

연회비 - 이사

◆인문대 △이재학 82
◆사회대 △유종성 75
◆자연대 △전홍조 82
◆경영대 △박아란 97 △박종완 71
◆공대 △김문경 61 △김재익 69
△박동서 61 △하태흡 75
◆농생대 △김욱생 62 △이혜근 67
△정진석 62
◆문리대 △김규완 60 △김동선 57
△정병오 70
◆법대 △강석훈 82 △송개동 83
△여정구 74 △최영일 59 △황철규 83
◆사대 △노갑기 66 △박종근 73
◆상대 △권태인 46 △김성규 57
△김순동 56 △김철영 70 △장태완 85
◆가정대 △이용호 78
◆음대 △노희영 80
◆의대 △김귀윤 66 △신기철 75졸
◆치대 △김명수 66 △임종호 82
△주문찬 03 △진종범 98
◆대학원 △김성권 87 △박명호 74
◆경대원 △이기화 91
◆법전원 △노경종 11
◆AMP △공덕수 55 △박인상 28
△정건택 21 △최광주 90 △홍경선 52
◆AIP △권오열 22 △마재관 22
△유영완 17 △조창식 45
◆ACAD △손창영 88
◆AMPP △하영수 02
◆AMPFRI △김순미 32 △김재원 17
△박용철 04
◆ACPMP △남순우 03 △박상남 03
◆GLP △조문현 31
◆FNP △류충현 05
◆AIC △박종렬 03

연회비 - 일반

◆통합이전 △양만규 45
◆인문대 △김규태 82 △김규태 15
△김민석 14 △김형석 85 △마르코 09
△박수호 81 △현청훈 95
◆사회대 △김승미 11 △김원산 84
△남기욱 92 △박성훈 90 △박희택 96
△성소진 15 △송다은 16 △신용배 86
△심민선 97 △안성식 88 △윤 헌 84
△이동훈 92 △최인오 12 △한도현 79
△한아름 18 △현은주 11
◆자연대 △이진희 03 △최진안 17
△한성호 89 △홍주영 93
◆간호대 △구보연 08 △장선주 98
△최정옥 55
◆경영대 △강신행 93 △김은아 08
△김종현 94 △박상희 02 △신동환 78
△신우석 97 △최현정 88 △한준희 11
△황 백 72
◆공대 △강연준 84 △강치헌 99
△김경민 02 △김다윤 15 △김대영 71
△김동규 58 △김용권 02 △김재필 80
△김정일 86 △김주혁 84 △민승기 06
△서승범 09 △손종우 94 △오세현 78
△이광민 57 △이동규 08 △이상원 12
△전광열 76 △정상오 00 △정서이 21
△정치권 60 △조재영 75 △진영헌 69
△최시정 55 △최우석 01 △하재욱 02
△홍승기 06
◆농생대 △김상진 71 △김종훈 67
△김진오 69 △박천섭 58 △송종익 55
△신태식 61 △염동민 83 △이인형 56
△전성억 55 △홍철선 58 △곽은주 97
△김병섭 85 △박소희 16 △박순흥 85
△백지선 12 △안옥선 87 △이우철 91
△이정환 21 △이효석 12 △차경훈 11
◆문리대 △강석명 56 △방형윤 58
△이병악 69 △인운섭 57 △정해용 49
△조원홍 71 △조환익 69 △조희곤 67
◆미대 △김현아 15 △박진희 12
△오영은 02 △최동신 60
◆법대 △강 훈 72 △김운용 81
△김태환 01 △류창범 91 △박진수 94
△배화승 60 △신학근 62 △신형식 90
△오재완 08 △이청준 06 △이현희 7 3
△임창훈 91 △최정본 06 △한 민 77
◆사대 △권도형 11 △길윤상 99
△김상희 13 △김수미 88 △김재영 58
△김지윤 12 △노지영 21 △박주해 50
△서덕현 69 △서성빈 03 △양 준 13
△이인영 17 △정귀생 58 △홍은진 10
◆상대 △강 영 64 △권기봉 54
△김신정 65 △김용일 68 △양해성 68
△전창기 57 △정종식 69 △조흠원 64
◆수의대 △김동환 82 △정지원 12
◆음대 △류영지 16 △변선아 14
△오예지 99 △현세은 09
◆의대 △김유정 97 △김진용 06
△이경민 02 △이승철 68
◆자유전공 △오강석 11
◆치대 △김상옥 67 △최남섭 73
◆대학원 △이성로 95 △정수경 71졸
◆경전원 △강민기 07 △고인상 14
◆경대원 △손영수 68
◆국대원 △이은경 10
◆보대원 △이윤현 89
◆신대원 △한형수 76졸
◆치대원 △류수영 12
◆행대원 △임세환 65
◆환대원 △육지환 19
◆AMP △이번우 52 △이중호 72
△임찬수 82
◆AIP △박종우 06 △서의석 27
△이명래 19 △홍강지 30
△정진규 65 △조규향 60
◆사대 △강위생 68 △국철호 76
△김동찬 51 △김영숙 54 △김영지 68
△김인수 53 △김홍우 54 △김후란 53
△나영일 76 △박문수 74 △박 용 59
△서정환 60 △서정환 60 △양동영 60
△이광석 59 △이동우 65 △이민부 74
△이영식 74 △이정희 56 △이종락 58
△이주연 11 △정동화 53 △조기호 54
△최방지 59
◆AIC △김병희 50 △김승룡 50
△장종환 50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10.24.~11.23.
홈커밍데이

200만원

△정팔도 AIP 01 상임부회장

100만원

△안태일 ACPMP 09 종신일반

30만원

△심인흥 AMP 46 종신이사

20만원

△이정근 인문대 03 종신일반

10만원

◆인문대 △김민수 05 △방시혁 91
◆사회대 △곽대환 81 △민지홍 01
△오흔진 91 △정운진 83
◆자연대 △김규중 72 △노주현 83
△조성현 08
◆간호대 △김주원 90 △소형선 73
◆경영대 △이정민 04 △하상욱 10
◆공대 △김봉완 46 △강행언 61
△구본영 90 △권봉일 69 △김동현 01
△김제영 71 △김준언 71 △김학준 68
△나인구 53 △나종택 53 △남두철 55
△남성능 82 △박종인 57 △서갑수 65
△서민석 61 △신영준 93 △안시영 58
△양기정 67 △이광성 66 △이대혁 87
△이승희 06 △이원복 50 △이의재 66
△이정균 77 △이지훈 06 △전복현 58
△정광섭 72 △정민석 08 △정봉주 82
△정세학 77 △정화진 85 △조장희 55
△조철제 57 △주익철 89 △최준철 71
△하상달 67 △한규현 99 △허종성 80
△황인준 95
◆농생대 △금방용 85 △김강식 52
△김남용 53 △김남훈 58 △김이기 80
△명의식 54 △송병진 75 △양종성 57
△유근영 54 △유대식 56 △유시창 9
△이돈구 65 △임병기 50 △임평자 61
◆문리대 △고영근 56 △남시욱 54
△성완희 57 △송용진 68 △엄영섭 66
△임현숙 70 △임현진 67 △전익우 60
△전혜자 61 △최선룡 58 △황국희 62
◆미대 △김경숙 63 △김재형 02
△김정혜 61 △이설자 61
◆법대 △김문희 55 △김우진 73
△김종욱 84 △남관모 03 △류준형 51
△박병훈 61 △박양한 60 △박재원 55
△방극성 74 △변충근 56 △윤남근 77
△이석태 78 △이재욱 97 △임광수 62
△장재식 52 △장태진 61 △정기승 49
△천광찬 28
◆AIP △권오일 30 △김재기 16
△배주호 43 △이현영 08 △조원호 14
△조희진 40 △최성순 61
◆ACAD △김형규 92 △안승우 38
△이우재 16 △전재욱 24 △정도정 71
◆ABP △김현식 20
◆SGS △이상포 28 △이종원 17
△현재환 35
◆HPM △유박영 30 △임용민 30
◆AMPP △신석흔 01
◆AFB △노완영 09 △박광수 15
△양호석 08
◆AMPFRI △장기봉 26
◆GLP △배영민 05 △장현봉 20
◆ALP △김영기 14
◆SPARC △김윤창 11
◆AFP △류재열 07
◆IFP △이해홍 12
◆AWASB △변진수 02

특별후원

10만원

△이원복 공대 66 △이영득 농대 76

관악회 기부금

11.1~11.30/당월금액(누계금액)

△김승환 약대 80 1000만원 (6000만원)
△윤웅재 사대 60 1000만원 (1000만원)
△황열순 자연대 86 1000만원 (2010만원)
△(주)흥국 1000만원 (7575만1000원)
△강충원 공대 59 300만원 (3230만원)
△박동서 공대 61 300만원 (930만원)
△이기용 사대 68 150만원 (150만원)
△이춘복 AMP 81 125만원 (750만원)
△김동호 문리대 62 100만원 (2억1900만원)
△김원기 GLP 31 100만원 (1450만원)
△배무환 경대원 66 100만원 (833만원)
△윤백중 AIP 4 100만원 (200만원)
△한병현 약대 77 100만원 (100만원)
△조현오 의대 64 100만원 (1100만원)
△우희명 GLP 37 50만원 (2300만원)
△김한중 공대 68 30만원 (720만원)
△노정석 사회대 87 30만원 (350만원)
△이창건 공대 49 30만원 (480만원)
△박주미 치대 81 20만원 (500만원)
△용환승 공대 79 20만원 (560만원)
△이윤종 의대 87 20만원 (440만원)
△정두영 인문대 84 15만원 (165만원)
△최병묵 사회대 78 15만원 (775만원)
△강지훈 공대 89 10만원 (80만원)
△김경호 사회대 86 10만원 (460만원)
△김영의 사대 49 10만원 (10만원)
△김현일 사대 13 10만원 (410만원)
△박성철 치대원 10 10만원 (60만원)
△안용주 음대 79 10만원 (1690만원)
△윤병재 의대 93 10만원 (440만원)
△이경준 공대 98 10만원 (590만원)
△이승무 사회대 72 10만원 (550만원)
△이승훈 법대 80 10만원 (60만원)
△이용철 농대 67 10만원 (30만원)
△이유림 공대 16 10만원 (50만원)
△이종일 농대 68 10만원 (150만원)
△정혜선 사회대 83 10만원 (490만원)
△최수아 보대원 01 10만원 (300만원)
△어명하 사대 59 5만원 (435만원)
△이언의 인문대 90 5만원 (113만원)
△전기평 의대 06 5만원 (420만원)
△조효정 사회대 97 5만원 (480만원)
△최이슬 의대 14 5만원 (60만원)
△최정운 인문대 93 5만원 (45만원)
△한기룡 경대원 71 5만원 (210만원)
△이상의 사대 06 3만원 (189만원)
△안수진 경전원 11 2만원 (70만원)
△김철진 사대 71 1만원 (25만원)
△신철희 인문대 92 1만원 (3만원)
△이동철 공대 95 1만원 (22만원)
△이상봉 인문대 86 1만원 (56만원)
△이성민 자연대 10 1만원 (9만원)
△최윤정 FIP 19 1만원 (6만원)
△박영신 사대 87 5000원 (22만원)

※ 관악회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 출연해주신 기부금에 대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날라리는 오늘도 무대를 누빈다

추억의 창

유지향
산림과학12-16
숲해설가·작가

십 년 전, 두레문예관에서 뮤지컬 '빨래'를 한 적이 있다. 서울대 뮤지컬 중앙동아리 '렛미스타트'에서 하는 공연이었다. 친구가 배우로 나온다길래 응원차 보러 갔다가 깜짝 놀랐다. 티켓값이 오천원이었는데 오만원을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완성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역시 서울대 사람들, 뭐든 마음먹으면 끝장을 내버린다니까.' 혀를 내두르며 공연장을 나왔다.

특히 무대 위에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친구가 부러울 정도로 멋있었다. 나도 연기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지만 곧바로 코웃음 쳤다. '내가 연기는 무슨!' 어설픈 연기 생각은 접고, 하던 밴드 활동에 몰두하기로 했다.

당시 농생대 밴드 '샌드페블즈' 40번째 키보드를 맡고 있었다. 샌드페블즈도 연습량은 끝장나게 많았다. 학기 중에는 3시간, 방학 때는 8시간씩 평일 내내 연습했다. 그렇게 일 년을 바치고 나니 키보드를 처음 다뤄본 나도 제법 근사한 연주를 할 수 있었다. 연주뿐만 아니라 소리 만드는 법, 다른 악기와 합을 맞추는 법 모두 선배들이 가르쳐줬다. 덕분에 일 년 만에 수준급 공연을 올렸다. 샌드페블즈는 음악 실력 외에도 다양한 전통을 지켜오고 있었다. 나이가 같아도 선배에게는 높임말을 써야 했다. 공연을 마치면 꼭 낙성대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고, 대학동 녹두거리에서 동동주를 마시며 '라떼는 말이야'를 나눴다.

그 시절 별명은 '날유'. 날라리 유지향의 줄임말이었다. 록(Rock) 음악은 몰라도 무대에서는 누구보다 잘 놀았다. 공연마다 머리카락 색을 빨강, 검정, 노랑, 갈색으로 바꿨고, 관객들의 환호성을 받으면 지하 연습실에 처박혀 연습하던 피로가 싹 풀렸다. 그렇게 좋아하던 밴드도 졸업하면서 자연스럽게 마무리했다.

이후 무대 오를 일이 없었는데 십 년이 지난 지금은 밴드가 아닌 연극 무대에 서 있다. 올해 초 지인에게서 "혹시 연기해 볼 생각 없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 순간 십 년 전 묵혀뒀던 마음이 튀어나왔다. '내가 연기를 한다고?!'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하는 성미를 참지 못하고 직장인 극단에 들어갔다. 들어가 보니 33년 전통을 가진 연극패였다. '연극이란 무엇인가'부터 발성, 호흡, 분장, 인물 분석하는 법까지 선배들이 가르쳐줬다. 저녁마다 지하로 가는 발걸음, 나이 상관없이 기수에 따른 호칭, 언제나 같은 식당에서 뒤풀이, 자주 가는 술집까지 어느 것 하나 낯설지 않았다.

일러스트 김나은(디자인17-23) 그래픽 디자이너

"농생대 밴드 '샌드페블즈' 40번째 키보드를 맡고 있었다. 샌드페블즈도 연습량은 끝장나게 많았다."

연극패와 밴드를 비교하며 전통을 가진 동아리, 동호회 비결을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하던 중, 지난 11월에 신입 공연을 올렸다. 석 달 동안 매일 저녁 지하에서 공들인 끝에 대학로의 한 소극장 무대에 올랐다. 과 동기들도 공연을 보러 왔다. 연극이 끝나고 난 뒤, 밴드 공연을 마치고 사진을 찍었던 그때처럼 기념 사진을 남겼다. 동기가 SNS에 사진을 올리며 '날유 is back.'이라고 썼다. 밴드 무대에서 키보드를 치던 날유는 십 년 만에 연극 무대로 돌아왔다.

돌이켜보니 졸업 후에도 숲해설가로 일하면서 숲이라는 무대를 누비고 있다. 계절마다 벚꽃, 단풍, 알록달록 조명이 비추고, 새 소리와 시냇물 소리 흐르는 음향 안에서 숲 이야기를 들으러 온 관객들을 만나고 있다. 독자에게 글로 생각을 펼치는 작가도 마찬가지다. 퇴고에 퇴고를 거친 끝에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때는 얼마나 짜릿한가! 남들에게 주목받고, 인정받기 좋아하는 성격은 여러 무대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전에는 '낮에는 숲해설가, 밤에는 글 쓰는 작가 유지향'이라 소개했는데, 작가보다 배우로 활동하는 밤이 길어진 만큼 인사말을 바꿔야겠다. '반갑습니다. 낮에는 숲, 밤에는 연극 무대를 누비는 작가 유지향입니다.'

*유 동문은 모교에서 산림환경학을 전공했다. 생태적 삶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 전북 변산 공동체학교 교사로 몸담았고, 현재 숲해설가이자 동물권 활동가·프리랜서 작가 등 'N잡러'로 살고 있다. 20대 시절의 생각과 경험을 담은 에세이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난'을 펴냈다.

과학·공학 10가지 도전적 질문 ③

효소처럼 뛰어난 수소생산 촉매를 만들 수 있을까?

성영은 (공업화학82-86)
모교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현택환 (화학83-87) 모교 석좌교수

효율적인 촉매가 없이는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대량으로 얻을 수 없다. 지구상에 가장 효율적인 수소생산 촉매는 인체 내의 효소다. 효소가 탁월한 촉매의 역할을 하는 메커니즘은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효소처럼 효율적으로 작용하는 촉매를 만들 수 있을까?

가장 깨끗하다고 평가되는 "21세기의 연료(Fuel of 21st Century)", 즉, 수소를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수소 생산 방법을 찾아야 한다. 현재의 주요 수소 생산 방법인 증기개질법(Steam Reforming)은 많은 온실가스(CO^2)를 방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 할 수 없다. CO^2 를 전혀 방출하지 않을 수 있는 대안으로 물을 전기분해하는 방식(수전해)이 주목받고 있으며, 그 촉매로는 이리듐과 같은 백금 계열의 귀금속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귀금속은 희소하고 가격이 높다는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귀금속보다 가격이 낮으면서도 수전해로 대량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촉매를 개발해야만 친환경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대안은 생명체 내에 있는 효소다. 생명체는 자체적으로 공유결합을 이용하여 매우 효율적으로 태양의 에너지를 저장하고 생명유지에 필요한 각종 화학반응을 효율적으로 해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효소가 기막힌 촉매의 역할을 한다.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반응속도를 촉진시킴으로써 상온, 상압에서 분자 간 결합과 해리를 아주 효율적으로 돕는 완벽한 촉매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장 이상적인 촉매인 효소를 모방하면서도 대량의 수소를 값싸게 생산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조건, 즉 활성(activity), 선택성(selectivity), 안정성(stability)을 충족하는 전기화학 촉매를 개발하는 것이 미래에 해결해야 할 난제다.

하지만 효소의 작동원리는 너무 복잡하여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모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효소의 어떤 구조적 특징 때문에 활성화에너지를 낮출 수 있는지를 계산해 보려 해도 계산 자체가 너무 복잡하여 기존의 슈퍼컴퓨터로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효소는 불안정한 상태의 유기물(단백질)이기 때문에 백금과 같은 귀금속 촉매와 달리 효율적인 대량생산에 적합하지 않고(activity의 문제), 유기물 내에 있는 균일 촉매이기에 우리가 원하는 생산물(product)만을 골라내기 어려우며(selectivity의 문제), 장기간 안정적인 촉매로 활용하기 어렵다(stability의 문제).

백금 계열의 촉매로 생산 가능한 수소의 양에 대해서도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백금 계열 소재 촉매의 수소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여전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철이나 니켈 등 비싼 백금과 같은 귀금속을 대체할 수 있는 전이금속 소재 촉매가 백금의 성능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백금 소재 촉매 혹은 백금보다 뛰어난 수전해 성능을 내는 전이금속 소재 촉매일지라도 자연의 효소가 갖는 성능을 결코 뛰어넘을 수 없다. 때문에 우리는 아직 효소 모방 촉매에 대한 꿈을 가지고 연구를 지속하고 있으며, 그 연구결과를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이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유기물로 이루어진 촉매(homogeneous catalyst)가 아니라 "효소의 원리를 모방한 고체 상태의 촉매(heterogeneous catalyst)"를 개발하는 방향에 주목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생물학, 물리학, 화학/화공 간 다학제적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생물학의 관점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효소의 작동원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물리학이나 컴퓨터공학의 관점에서는 복잡한 계산을 가능케 하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여 이를 촉매 설계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효소 모방 촉매를 개발한다면 물에서 우리가 원하는 수소만을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좋은 촉매로서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궁극적으로 수소는 에너지의 장주기 저장으로서도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전기 발전 비용에서의 경쟁력을 가짐으로써 에너지 산업의 포트폴리오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 결국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진정한 의미의 "21세기의 연료"의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최근 저자들의 연구실에서 공동연구팀의 도움을 받아 인체 내의 활성산소를 조절하는 SOD(superoxide dismutase) 효소를 모방하는 촉매를 개발하였다. 코발트를 기반으로 하는 효소 모방 촉매로 최고 성능의 친환경 화학물질인 과산화수소를 생산할 수 있었다 ("Supramolecular tuning of supported metal phthalocyanine catalysts for hydrogen peroxide electrosynthesis," Nature Catal. 2023, 6, 234; "Atomic-level tuning of Co-N-C catalyst for high-performance electrochemical H2O2 production," Nature Mater. 2020, 19, 436). 또한 수소를 생산하는 효소(hydrogenase)를 모방하여 구리 이온이 타이타니아 나노입자에 원자 상태로 분포되어 있는 단원자 촉매를 개발하여 광촉매 반응으로 물을 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Reversible and cooperative photoactivation of single-atom Cu/TiO2 photocatalysts," Nature Mater. 2019, 18, 620; "Electronic interaction between transition metal single-atoms and anatase TiO2 boosts CO2 photoreduction with H2O," Energy Environ. Sci. 2022, 15, 601).

모교 국가미래전략원의 '과학과 기술의 미래 클러스터'(클러스터장 이정동)에서 최근 '그랜드 퀘스트 2024'(포르체)를 펴냈습니다. 이정동 클러스터장은 "도전적 질문(Grand Quest)이 진정한 혁신의 출발점"이라고 말합니다. 10개의 도전적 질문을 통해 최신 과학·공학의 이슈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서울대총동창신문에서 10회에 걸쳐 그 내용을 전합니다. -편집자 주

Grand Quests 연재 순서

1.집적회로기반 양자컴퓨팅
2.프라이버시 기반 인공지능
3.효소모방 촉매
4.추론하는 인공지능
5.체화 인지구조 인공지능
6.인공지능 기반 항체설계
7.노화의 과학
8.초미세/초저전력 반도체
9.환경적응적 로봇
10.초경량 배터리

관악논단

이민자와 더불어 사는 시대

우병렬
공법86-90
이민정책연구원장

서울대의 외국인 학생이 2198명이고, 외국인 교원/연구원은 436명이라고 한다(출처: 서울대학교 다양성위원회). 아직 큰 숫자는 아니지만, 필자가 다닌 법과대학, 행정대학원에 외국인 학생과 교수님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이나 이민자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된 것 같으며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것 같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흐름이 큰 영향을 받았고, 각국은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인력에 의존해 온 농업이나 보건 등의 분야에서 노동력 부족을 절감하게 되었다. 기존에 '저숙련'으로 분류되었던 외국인들의 노동이 '필수노동(essential work)'으로 그 가치를 재평가받게 되었다. 한국 역시 농어업, 제조업 등 모든 산업 영역에서 노동력 부족의 여파를 크게 겪었다. 코로나19의 위험성이 줄어들면서 정부는 그동안 해외에 발이 묶였던 외국인들의 입국을 허용하기 시작하였고, 이제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처럼 보인다. 이에 더해 체류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외국인의 장기취업 허용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 외국인 유치를 통해 지역의 활력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최근 발표된 '202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은 전체 인구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OECD는 한국을 지난 20~50년간 '해외로부터 상당한 취업이민자 유입이 있어 온 최근 이민목적국(more recent destination with a significant share of labour migrants)'으로 분류하고 있다(2023년 기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민자 규모가 작은, 새롭게 부상하는 이민목적국(emerging destination with small immigrant populations)'으로 분류(2018년 기준)되었던 한국에 대한 관점이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노동력 메꾸려는 단기 관점보단 같이 살고 싶게 하는 정책 필요

이렇게 외국인이 지속해서 유입되고, 그중 일부는 우리의 가족으로, 혹은 우리의 이웃으로 정착을 꾀하는 상황에서도 우리 사회는 과연 이민자들과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었는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된다. 해외에서 간혹 인종 간 갈등 소식이 들릴 때마다 우리 사회에는 외국인의 유입으로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지, 이 갈등을 우리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외국인이 노동자로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였고, 2000년대를 지나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정부는 외국인의 유입과 정착,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지속해 왔다. 재외동포법(1999), 외국인고용법(2003), 외국인처우법(2007), 다문화가족법(2008), 난민법(2012) 등 외국인·이민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민자와 한국 사회가 잘 통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들이 운영되고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내국인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총인구의 71.5%에서 2040년 55.7%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적극적 이민정책을 펴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가 수도꼭지를 여닫는 것처럼 이민 이슈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필요한 시점에 올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우리의 주요 송출국인 베트남, 중국 등도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성장을 경험하면서 이들 국가 출신자들은 한국에서 잠시 머물다가도 자국으로 돌아가 취업이나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웃 일본은 다양한 기술수준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법제도를 바꾸고 이민청도 만들었다. 우수 이민자를 놓고 경쟁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외국인·이민 관련 법제도 기틀 마련의 노력이 있었지만, 이제는 운영의 '전략'이 필요한 때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 유치에 있어서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들의 법제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제이주의 흐름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부족한 노동력을 메꾸는 단기적 관점이 아니라 이민자가 우리 사회에 정착하고 동화되도록 하는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의 이민정책이 필요하다.

*외국인 주민: 90일 초과 국내 체류 외국인, 귀화자, 귀화자의 미성년 자녀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미성년 자녀 등을 뜻함.

낭만뿐이면 어떠랴, 반짝이는 청춘인 것을

재학생의 소리
이상준
인문계열23입
서울대 응원단 15기

"대학을 인생의 목표로 두지 말아라." 내가 대학에 오기 직전에, 그리고 대학에 오고 나서 가장 많이 들은 조언 중 하나이다. 학교에 갓 합격한 나에게는 이해는 되지만 공감하기는 어려운 그런 말이었다.

사실, 열아홉이었던 나만이 아니더라도 스물 남짓한 새내기들의 인생에서 '대학 합격증'이 그들의 짧다면 짧은 인생을 건 목표가 아니었던 이가, 적어도 이 학교엔 얼마나 되겠는가? 그래서 대학을 붙고 마냥 기쁠 줄만 알았던 과거의 기대와는 다르게, 합격 직후 2월의 나는 꽤나 공허함을 안고 있었다. 마냥 바라보고 걸을 수 있었던 길잡이별이 한 순간에 사라진 듯한 기분이었던 것이다.

그런 와중 참여하게 된 새내기 새로배움터, 일명 '새터'에서, 나는 응원단을 만나게 되었다. 너무 많은 정보, 끝도 없이 자유로운 선택, 기억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새로운 관계가 쏟아지던 길 잃은 새내기에게 새터 공연 맨 마지막 순서를 장식한 그들의 무대는 특별했다. 반짝이는 무대 위에서 언제나 청춘을, 우리를 응원하겠다는 단장과 단원들, 그리고 하나되는 너와 나. 다른 이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을 지 몰라도, 나에게는 적어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았다.

"어디로 가야할 지 몰라도 괜찮다. 혼란스러워 해도 괜찮다. 충분히 헤매고 고개를 들면, 그 때는 하늘에 수 놓인 수많은 별이 보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과정에서 도전하며 지치며 때로는 좌절할 그대들을 응원하겠다."라고 말이다. 그렇게 새터가 끝나고 고개를 들어보니, 응원단은 나의 북극성이 되어 하늘 한가운데서 빛나고 있었다.

홀린 듯이 응원단원이 되었고, 정말 사랑하는, 내 일부가 되어버린 이 집단에서 활동한 지도 이제는 반년이 훌쩍 넘어간다. 지난 1학기를 기점으로 더욱 다양한 무대에서 서서 청춘을 응원하는 응원단. 누군가는 한 줄의 '스펙'조차 되지 않을 낭만뿐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곳에서 커다란 것을 얻어가고 있다.

나의 청춘에, 언제나 애정에서 비롯된 최선을 다할 집단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를, 함께하는 이들과 나의 노력으로 내가 사랑하는 집단이 성장하는 것이 설명할 수 없이 보람참을, 그리고 나의 구슬땀이 흘러 다른 이들에게 울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기쁨인지를 응원단과 함께하는 날이 늘어날수록 느낄 수 있다.

말마따나 낭만뿐이면 어떠랴. 나는 낭만으로 모인 우리의 응원단이 전달하는 사랑과 정열의 가치를 믿는다. 그 사랑과 정열이 다시 모여, 앞으로 더 활짝 개화할 나의 응원단이 언제나 청춘들의 동화가 될 것임을 믿는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보고 있을 그대에게, 우리는 언제나 반짝이며 당신의 청춘을 사랑과 정열으로 응원할 것임을 전한다.

만평

이원복
건축66입
덕성여대 명예교수

느티나무칼럼

어떤 구순 선물

김영희
고고미술사88-92
한겨레 편집인
본지 논설위원

지난달 시어머니 구순을 맞아 전국에 흩어진 네 자녀와 그 가족들 12명이 밀양 근처 골짜기 펜션에 모여 1박 2일을 지냈다. 소박하지만 정성껏 상을 차리고 가족사진을 확대해 걸개사진과 풍선을 매다니 고급식당의 잔칫상 못지않았다. 고기를 구워 먹고 술 한잔씩 나누자 흥이 오르셨는지 어머니는 메들리로 노래도 부르셨다.

어머니가 한사코 선물은 받지 않겠다고 하셔 고민이라던 남편은 깜짝 선물을 내놨다. 큰아들인 남편이 쓰고 막내딸이 사진과 함께 편집해 한 장 한 장 코팅한 A4용지 크기 13페이지짜리 어머니 '평전'이었다. 사실 몇 해 전부터 남편은 어머니를 만나 시간이 될 때마다 이것저것 물어 당신의 삶을 회고하는 영상을 조금씩 찍어놓은 터였다. "어머니가 더 기억력이 쇠하기 전에 기록이라도 해둬야겠다는 정도"였지, 딱히 뭘 하겠다는 계획은 아니었다고 한다. 그랬던 기록이 어머니의 선물 거절로 '급하게' 책자 형태로 만들어진 셈이다.

남편이 쓴 시어머니 평전 뭉클
모든 삶은 기록되어 마땅하다

지방에서 혼자 힘으로 갖은 장사를 하며 네 자녀를 키운 어머니다 보니, 일찍부터 떨어져 살았던 아들과 살갑게 당신의 과거를 이야기 나눌 기회는 좀체 없었던 듯하다. 남편은 어머니가 말라리아를 2년 넘게 앓은 데다 "여자가 많이 배워 뭐하냐"는 할머니 때문에 중학교를 마치지 못했던 사연도 기록을 시작하면서 처음 들었다고 했다.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책 읽기를 좋아하고 세상일에 관심이 많아 '바른말' 하기를 좋아하는 어머니의 모습, 치매를 막으려 지금도 하루 한 페이지씩 천자문 쓰기를 하고 설거지와 손빨래를 하는 어머니의 일상도 책에는 담겼다.

지난해 '한겨레'엔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신청하는 평범한 어르신들의 구술자서전을 매해 쓰는 작가 모임을 소개하는 기사가 실린 적 있다. 작가들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자서전이냐'고 하던 노인들도 구술자서전 작업을 통해 인생을 반추하고 자신의 삶을 긍정하게 되더라고 했다. 어머니는 신부님이 성당의 여러 신도 앞에서 "나이 드신 분 중 가장 조리 있게 말하는 분"이라고 당신에 대해 말했던 것을 가끔 얘기한다. 그만큼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닌 것이 한이 됐을 것이다. 남편은 평전이라 부르기 민망하다고 하지만, '자랑스러운 우리 엄마 000'라는 제목의 책자는 어머니의 삶에 더할 나위 없는 응원과 지지가 되지 않았을까.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기록은 더욱 손쉬워졌다. 빛나고 화려하지 않아도 좋다. 세상에 기록되어 마땅하지 않은 삶은 없는 법이니.

서울대 총동창신문
발행인 김종섭 편집인 이경형 편집장 김남주 기자 나경태·박수진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416호
전화 02-702-2233 팩스 02-886-2218 이메일 news@snua.or.kr
편집디자인 Sac design 인쇄 중앙일보
*칼럼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best sleep

손연재의 신혼침대 베스트슬립

2014 인천 아시안게임,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손연재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건 대회에는
항상 베스트슬립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지금,
그녀는 역시 베스트슬립과
함께합니다.

행복한 출발을 위한 최고의 선택,
5성급호텔 침대 베스트슬립
Your best life begins with bestsleep.

서진원 대표(경영 04)

- 베스트슬립 대표 & FOUNDER
- 바른수면연구소 소장 SINCE 2012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서울대병원 수면의학센터 수면전문가 위원
-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 수면 컨설팅
- 대한수면의학회 평생회원

www.bestsleep.us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베스트슬립의 33개
직영쇼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best sleep
Team Korea
OFFICIAL PARTNER